東大新聞
發行人 永震鎬
編輯人 黃兪鄭 靑光九
印刷人 金容寬 詰浩友
主幹 金申李 慶友
編輯局長
編輯部長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中區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週8131~9
本社直通 週8577
慶州캠퍼스
우편번호 681
경북 월성군 현곡면금장리 707
전화 경주2—0131~9
每週 火曜日發行

제18대 總學선거 막바지 熱氣

4명 입후보 3차례 선거유세 마쳐

13·14 양일간 總選 실시

慶州 보궐선거 27일에

대학회장 선거 12일끝내

총학 선거유세

지난11월 오후1시 중강당에서의 「제3차 할동선거유세」를 마지막으로 세차례에 걸친 「제18대 총학생회장 선거유세」가 모두 끝났다.

지난5일 오후1시 불상앞에서열린 「1차선거유세」는 1천여명의 학생이 모인가운데 각후보자들이 총학생회의 방향성, 동국발전의 저해요소, 민주화를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되었으나 중선위부위원장 유현수(철학·4)군의 발언이 문제가되어 자진사퇴하게되는 약간의 불의를 빚기도 하였다.

「2차 선거유세」는 지난7일 불상앞에서 1천2백여명의 학생이 운집한가운데 각후보자들이 학생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불교악법철폐」 「三民특별기구 편성」 「써클활동활성화」 「후생복지」 「학회지원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주장해 많은 박수갈채를받았다.

마지막 유세인 「3차 선거유세」는 지난11일 오후1시 중강당에서 「총여학생회 2차선거유세」를 마지막으로 「총여학생회」 선거유세를 모두 마쳤다.

1차선거유세는 지난5일 불상앞에서 5백여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고, 2차선거유세는 지난11일 오후 12시30분경 중강당에서 2백여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2차에 걸친 선거유세에서 기호1번 남미영(농생·3)양은 참된 민주주의 실현은 맹목적 투쟁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성 실현이라고 전제한 후 취업, 여학생간 교류, 단대여학생회 활성화, 여학생회의 독자성 등을 주장했고 기호2번 배전미(국사교·3)양은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며 여러면에서 선수전원의 폭넓은활약에 힘입어 전반부터 시종 여유있는 경기를 펼쳐 62대59로 승리를 거둔후, 10일 한양대에 61대59, 11일 홍익대에 63대59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대회 마지막날인 12일에는 건국대에 56대46으로 이겨, 감격의 우승을 안았다.

여총 선거유세

지난11일 오후1시 중강당에서 「총여학생회 2차선거유세」를 마지막으로 「총여학생회」 선거유세를 모두 마쳤다.

1차선거유세는 지난5일 불상앞에서 5백여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고, 2차선거유세는 지난11일 오후 12시30분경 중강당에서 2백여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2차에 걸친 선거유세에서 기호1번 남미영(농생·3)양은 참된 민주주의 실현은 맹목적 투쟁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성 실현이라고 전제한 후 취업, 여학생간 교류, 단대여학생회 활성화, 여학생회의 독자성 등을 주장했고 기호2번 배전미(국사교·3)양은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며 여러면에서 선수전원의 폭넓은활약에 힘입어 전반부터 시종 여유있는 경기를 펼쳐 62대59로 승리를 거둔후, 10일 한양대에 61대59, 11일 홍익대에 63대59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대회 마지막날인 12일에는 건국대에 56대46으로 이겨, 감격의 우승을 안았다.

단대 할동유세

「단과대 할동선거유세」는 지난6일과 8일에 각 단과대별로 진행되었으며 투표는 12일 실시된다.

대학농구서 첫 패권

결승리그 4전 全勝

本校 농구부가 상중세를 타고 창단이래 첫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본교는 예선서 서울大와 성균관大를 연파하고 2승1패를 기록, 6강이 겨루는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지난해 우승팀인 高大와 맞붙은 9일 결승리그 첫경기에서 선수전원의 폭넓은 활약에 힘입어 전반부터 시종 여유있는 경기를 펼쳐 62대59로 승리를 거둔후, 10일 한양대에 61대59, 11일 홍익대에 63대59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대회 마지막날인 12일에는 건국대에 56대46으로 이겨, 감격의 우승을 안았다.

경주총선 일정

대의원회서 확정

慶州캠퍼스 총학생회 집행부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가 오는27일에실시된다.

지난11일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확정, 공고된 일정은 지난7일 대의원회 표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입후보자의 자격을 5학기등 모든 선거시행세칙은 기존회칙을 그대로 준용키로 했다.

유세 20일▲2차유세 26일▲선거일 27로 되어있다.

이번 보궐선거를 관장하게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지난7일 총학 집행부를 제외한 중·선·위원 6명, 대의원 중 3명 등총7명으로부성된바있다. 중·선·위는 지난11일 선거일정 공고에 이어 실무작업에 들어갔는데 지난 12일 인천시립체육관에서 폐막된 「추계대학농구연맹전」에서 본교는 결승리그에서 4승을 기록, 연세대와 세차례 맞붙게되어 우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결과는 본교의 압승으로 끝났다.

申國柱 법대학장 회갑논문집 증정받아

신국주 학장

申國柱 본교 법정대학장이 지난9일 오후5시 서울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회갑기념 논문집인 「韓國憲法論」을 제자들로부터 증정받았다.

선무부 준우승

대학태권도 대회서

선무부가 지난2, 3일양일간 한국할동대학에서열린 「제6회 전국대학친선 권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학간의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열리는 이대회에서 同會는 괸급에 출전한 박평수(전산관)君의 금메달을 비롯 은2·동1개를 따냈다.

「교사채용 차별철폐하라」

사대비상총회 순위고사 대책논의

사범대 학생회는 지난11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4백여명의 사범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지난7일 문교부가 발표한 순위고사 실시요강에 대한 학교당국의 방침을 묻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 학생들은 의도적인 사립사대의 질적 저하정책의 일환으로 수용인원을 두시한 부계획적인 교사자격증남발과 취업기회 감소등 사범대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있는 국·공립 사범대와의 차별대우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며 교사채용에서의 차별철폐·교원대학 철폐등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자리에서 裵鍾根사대학장은 『교사취업을 위한 정보센타 설치와 재단을 통한 부속중·고등학교에의취업기회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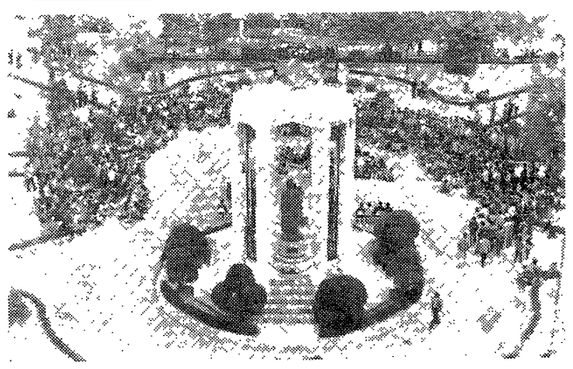
이어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밝힌 정당한 주장들이 관철되지 않을시에는 무기한 전면수업 거부도 고려, 계획을 세우지 못한 문교부의 정책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힐난했다.

구국선언문 채택

경주, 학생의날 행사서

慶州캠퍼스의 「학생의날」 기념식및 학생분동발표회가 지난5일 오후1시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양원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추도시 낭독, 애국가 제창, 학생운동사 보고, 구국선언문 채택,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불상앞에서의 총학생회장선거 유세장면.

총학회장 권한대행에 최영호君

총학생회 운영위는 지난5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곤과대학생회장 최영호(산업공·4)군을선출했다. 이번 총학생회장권한대행선출은 총학생회칙 제54조 규정(정·부회장이 모두 궐위시, 잔여임기가 4개월미만일때는 단과대 학생회장중에서 호선한다)에의한 것으로 그동안 직무대행을 맡아온 부 학생회장 강병용(농경·4)군까지지난1일 경찰에 연행됨에따라 정부 회장궐위로 취해진 조치이다.

이로써 총학 회장 권한대행결 중·선·위 위원장을 맡게된 분은 『이번 한대행은 17대 총학과 18대 총학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상호 흑색선전등 與國의 분열을 유발시키는 총선 과잉행동은 삼가해주었으면한다』고 후보들에게 당부하기도했다.

淨土思想 한국적전개 다뤄

「고교古典교육 문제점」 논의

주제발표이어 활발한 토론벌여

本校 불교문화연구원(원장=李載昌) 주최, 「韓·中·日 佛敎學術大會」가 지난 8·9일 양일 국내·외 학자및 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불교사상의 체계적정리를 위한 학사로 지난82년부터 해마다 열려온 이 학술대회의 금년도 주제는 「淨土思想의 韓國的展開」로 11명의 韓·中·日 불교학자들이 주제논문 발표자로 나섰다.

사범대학 주최 「제6회 교육문제심포지움」이 지난8일 3백여명의 학생인사, 학생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고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 李丙疇(國文科) 교수는 「韓·中·日 佛敎學術大會」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소개하면서 『고전수필의 「元祥라 할 수있는 「閑情賦」 「五柳先生傳」 「歸去來辭」 「陋室銘」 「前赤壁賦」 「後赤壁賦」 「愛蓮說」 「祭十二郎文」 「祭妹文」 「祭鱷魚文」 「阿房宮賦」 「出師表」 「岳陽樓記」 「滕王閣序」 「醉翁亭記」 「秋聲賦」 「赤壁賦」 「歸田賦」 「歸園田居」 「桃花源記」 「歸去來辭」 「五柳先生傳」 「陋室銘

사설

총학생회 선거에 부쳐

제18대 총학생회선거가 박두하여 살쌀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캠퍼스 곳곳엔 총선 열기로 가득하다. 이번 총학생회선거는 대학 자율화 이후 2번째 실시되는 핵심적 선거에 비하여 우선 그 운영면이나 관리면에 있어서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에 있어 진일보한 총선이기를 바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총학 운영위원과 각 단대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中·選·委는 그동안 선거일정공고, 선거법시행령마련, 후보등록 및 기호추첨, 합동선거유세의 관장 등 선거에 필요한 제반 행사를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선·위에서는 12일의 단과대 선거에 이어 13·14일의 총·부학생장선거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구석구석 추진되고 있어야 하겠다.

선거라면 중앙관람과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때로는 폭력사태로 손색이 없는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인 만큼 이번 총·부학생장선거는 각 단과대학 학생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東大學校 개교80주년 기념행사를 주체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학생간부들이니 만큼 학생간부들의 총학간부들 보다 더 유능하고 기탄없는 人物들이 뽑혀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새총학회장단이나 간부진에게 거는 우리의 기대 또한 너무나 큰 바 있다.

추진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東國은 80년의 숙원인 醫大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경향각지에 부속병원 내지 불교병원의 설립이 長·短期계획으로 구상, 추진되고 있어校勢擴充의 고무적인 轉機를 맞았다.

따라서 이제 80년 역사의전통에 손색이 없는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인 만큼 이번 총·부학생장선거는 단순한 학생들의 선거가 아닌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임을 인식하고 학생간부들은 물론 학생들 모두가 선거일정을 숙지하고 선거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당선되는 총·부학생장이나 각 단과대학 학생간부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東國大學校 개교80주년 기념행사를 주체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학생간부들이니 만큼 예년의 총학간부들 보다 더 유능하고 기탄없는 人物들이 뽑혀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새총학회장단이나 간부진에게 거는 우리의 기대 또한 너무나 큰 바 있다.

추진하는 바와 같이 현재 총·부학생장이나 각 단과대학 학생간부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東國大學校 개교80주년 기념행사를 주체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학생간부들이니 만큼 예년의 총학간부들 보다 더 유능하고 기탄없는 人物들이 뽑혀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새총학회장단이나 간부진에게 거는 우리의 기대 또한 너무나 큰 바 있다.

이 논문은 통계학과에서 공동조사한 「본교생의 생활태도및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로서 대학의 인식문제에서부터 학외문제에 이르기까지 4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한 것이다。학회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本紙는 앞으로 학과단위의 공동논문을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바이다。紙面관계상 「종교관 및 동국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와 「후생복지」, 「남녀관계」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註>

東國人、가장 큰 고민은 "취직"과 "성적"

Ⅰ、대학의 인식과학 구태도및 생활기호

본교생들이 大學에 進學한 이유로는 장래의 취업을 위해서 진학한 경우가 40·91%(3백24명)으로 진리탐구를 위한다는 순수한목적을 가진 학생들보다 앞서고 있음(2백15명으로 27·15%)을 알수 있다。이들을 남녀별로 분류해볼때 남학생이나、여학생 모두 진리탐구의 목적보다 장래의 취업을 목적으로 진학한 학생이 보다 많음 (진리탐구 37·44%)을 알수있다。

또 本人의 해당 學科에 대해서는 4백94명으로 59·81%가 만족하고 있는반면、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學生(1백31명으로 15·86%)도 제법있어 학생들의 부정적 측면인 「우선 볼고보자」는 눈치지원의 여파가 대학에 일찍해 하여서도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學科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은데 비해 전체의 68·59%(5백59명)의 학생들이 학교내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않다고 대답、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있다고 대답한 1백23명의 학생(15·09%)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이는 문교부의 대학자율화 조치 및 학교당국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원내의 많은 인들에 의해 면학의 분위기가 좌우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들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교내의 불충분한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학생들이 전체의 25·33%(1백55명)로 가장 많았고、현사회적 외부요인(24·67%)및 학생의 행위(23·53%)순으로 나타났으며、교수의 무성의를 지적하는 학생들도 14·54%(89명)나되었다。한편 대학내에서 교수와 학생간에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73명으로(8·88%)、잘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6백21명으로 75·55%에 해당)에 비해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학내의 또다른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대학의 不在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과 교수간의 거리감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4백69명으로 전체 대상인원의 절반이상이나 되었으며、교수의 권위적 태도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91·53%나 되어 문제가 되고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이것은 학생들과의 인간관계를 절절성하는 교수가 가장 이상적인 교수상이라고 생각하는 (56·56%)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강의와 연구에만 충실한 교수가 좋다고 대답한 학생은 12·48%와 1·27%에 불과해 품위와 권위만 지키는 교수(2·42%)와 합쳐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는 本科가 해마다 동일한 설문의 결과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이며 우선히 대학의 통폐를 모색하는 길만이 결의의 실마리가 될수 있음을 알수있다。본교생들이 月평균 읽는 단행본의 수는 1~2권 정도이며、주로 선택하는 단행본은 사상집(26·46%)、현대소설(25·66%)、수필집(25%)등의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곰부하는 시간은 32%(2백57명)가 하루1~2시간 정도였으며、8시간 이상 곰부하는 學生들도 6·23%(50명)나 있었다。또한 학내의 써클에 대한 관심도는 55·50%(4백54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38·63%(3백16명)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본교생들이 안고있는 현재의 가장 큰 고민을 두가지만 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졸업후 취직문제」가 가장 많았다。이것을 男女別로 구분해 보아도 男女學生 모두가 졸업후의 진로에 가장 큰관심을 가지고있었다。

본교생들이 본인은 신문의 면은 사회면(29·58%)、스포츠(21·86%)、정치면(21·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77·66%가 신문의 내용이 공정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TV시청 시간은 30~60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이는 男女學生모두 91·53%나 되어 문제가 되고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이것은 학생들과의 인간관계를 절절성하는 교수가 가장 이상적인 교수상이라고 생각하는 (56·56%)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강의와 연구에만 충실한 교수가 좋다고 대답한 학생은 12·48%와 1·27%에 불과해 품위와 권위만 지키는 교수(2·42%)와 합쳐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는 本科가 해마다 동일한 설문의 결과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이며 우선히 대학의 통폐를 모색하는 길만이 결의의 실마리가 될수 있음을 알수있다。본교생들이 月평균 읽는 단행본의 수는 1~2권 정도이며、주로 선택하는 단행본은 사상집(26·46%)、현대소설(25·66%)、수필집(25%)등의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곰부하는 시간은 32%(2백57명)가 하루1~2시간 정도였으며、8시간 이상 곰부하는 學生들도 6·23%(50명)나 있었다。또한 학내의 써클에 대한 관심도는 55·50%(4백54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38·63%(3백16명)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본교생들이 안고있는 현재의 가장 큰 고민을 두가지만 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졸업후 취직문제」가 가장 많았다。이것을 男女別로 구분해 보아도 男女學生 모두가 졸업후의 진로에 가장 큰관심을 가지고있었다。

본교생들이 본인은 신문의 면은 사회면(29·58%)、스포츠(21·86%)、정치면(21·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77·66%가 신문의 내용이 공정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TV시청 시간은 30~60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이는 男女學生모두 91·53%나 되어 문제가 되고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이것은 학생들과의 인간관계를 절절성하는 교수가 가장 이상적인 교수상이라고 생각하는 (56·56%)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강의와 연구에만 충실한 교수가 좋다고 대답한 학생은 12·48%와 1·27%에 불과해 품위와 권위만 지키는 교수(2·42%)와 합쳐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는 本科가 해마다 동일한 설문의 결과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이며 우선히 대학의 통폐를 모색하는 길만이 결의의 실마리가 될수 있음을 알수있다。본교생들이 月평균 읽는 단행본의 수는 1~2권 정도이며、주로 선택하는 단행본은 사상집(26·46%)、현대소설(25·66%)、수필집(25%)등의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민주개헌의 대도로 전진

수능科목만 15% 누진지원 연구

추업우애 進學 40%·진리탐구 27%

<표1>조사의 대상(%)

대학	불교	문과	이과	법정	경상	농과	공과	사범	이부
인원	38 (4·56)	108 (12·95)	72 (8·63)	85 (10·19)	75 (8·99)	48 (5·76)	117 (14·03)	128 (15·35)	163 (19·54)

합계 (남자)560 (여자)237 (무응답)37 (총계)834

<표2>대학진학 이유(%)

구성별	진리 탐구	풍부한교양	결혼 조건	장래의취업	고도의기술	기 타
남 자	27·00	12·85	2·61	42·46	4·10	10·99
여 자	27·40	19·63	4·11	37·44	1·37	10·05

<표3>면학분위기 미조성 이유(%)

적은강의시간	불충분한시설	교수의무성의	현사회적외부조건	학생의 행위	기 타
5·88	25·33	14·54	23·53	6·05	24·67

<표4>사제간의 대화부재 이유(%)

거리감	교수의불응	권위적태도	필요성의부재	도움이없음
64·07	5·87	16·53	8·20	5·33

<표5>현재의 고민(%)

	취직	이성	가정	교우	학비	성적	정치	사회	병역	기타
남 자	23·58	11·24	5·87	6·50	7·23	15·93	8·17	5·56	13·42	3·67
여 자	31·39	15·44	5·57	11·90	4·56	18·48	4·05	5·06	1·01	2·53

<표6>장래설정직업(%)

	교수	교사	관료	전문	기술	사업	영농	사원	금융	언론	정치	군인	예술
남 자	20·15	6·08	8·56	17·49	7·03	14·64	2·66	9·51	3·04	3·23	2·47	0·95	4·18
여 자	16·82	39·55	2·73	11·82	2·27	8·18	0·45	3·18	2·27	7·27	0	0	5·45

<표7>총학생회부활(%)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대체로불만	매우불만
14·78	61·12	18·26	5·84

<표8>12대총선(%)

민주적	부정선거	대체로공정	모르겠다
5·39	46·76	27·05	20·81

<표9>직선제개헌(%)

찬성	반대	무관심
81·89	9·68	8·43

<표10>올림픽유치(%)

잘했다	시기상조	모르겠다
35·81	51·77	12·42

<표11>서울올림픽의경제성(%)

흑자	적자	흑자도적자도아니다
21·64	56·72	21·64

Ⅱ、장래 목표와 직업선택

본교생들은 목표(36·36%)라고 대답한 학생(6백21명으로 75·55%에 해당)에 비해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학내의 또다른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학과 교수간의 거리감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73명으로(8·88%)、잘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6백21명으로 75·55%에 해당)에 비해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학내의 또다른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대학의 不在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과 교수간의 거리감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4백69명으로 전체 대상인원의 절반이상이나 되었으며、교수의 권위적 태도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91·53%나 되어 문제가 되고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이것은 학생들과의 인간관계를 절절성하는 교수가 가장 이상적인 교수상이라고 생각하는 (56·56%)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강의와 연구에만 충실한 교수가 좋다고 대답한 학생은 12·48%와 1·27%에 불과해 품위와 권위만 지키는 교수(2·42%)와 합쳐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는 本科가 해마다 동일한 설문의 결과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이며 우선히 대학의 통폐를 모색하는 길만이 결의의 실마리가 될수 있음을 알수있다。본교생들이 月평균 읽는 단행본의 수는 1~2권 정도이며、주로 선택하는 단행본은 사상집(26·46%)、현대소설(25·66%)、수필집(25%)등의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곰부하는 시간은 32%(2백57명)가 하루1~2시간 정도였으며、8시간 이상 곰부하는 學生들도 6·23%(50명)나 있었다。또한 학내의 써클에 대한 관심도는 55·50%(4백54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38·63%(3백16명)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본교생들이 안고있는 현재의 가장 큰 고민을 두가지만 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졸업후 취직문제」가 가장 많았다。이것을 男女別로 구분해 보아도 男女學生 모두가 졸업후의 진로에 가장 큰관심을 가지고있었다。

본교생들이 본인은 신문의 면은 사회면(29·58%)、스포츠(21·86%)、정치면(21·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77·66%가 신문의 내용이 공정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TV시청 시간은 30~60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이는 男女學生모두

東國80年史 길목에서 ——기획좌담 <13>

장학제도 문제는 수혜자 액수등 지급내역 공개돼야

불교장학등 일부 편중우려

외부장학금지원 빈약은 "홍보부족탓"

〈참석자〉

사회=김 영 태(本社 문화부장)
때=85년11월4일
곳=학생처장실
유광진 교수(학생처장) 문선근(공과대 토목공학과) 김동녀(사범대 국어교육과)

▲사회=바쁘신중에도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사에서는 동국80주년을 앞두고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좌담을 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장학제도」를 다루려합니다. 먼저 장학제도는 어느 大學에서나 우수한 학생의 유치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며, 대학이 성장해 나가는 데도 무척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생처에서 「장학제도」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처장=장학제도의 의의라면 면학분위기의 고취에 있다고 봅니다.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격려의 의미로서 더욱 학분탈무에 몰두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인 동시에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회=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와 내용은 어떠한지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金처장=장학금으로 佛敎장학금, 校內장학금으로 首席·次席장학금, 10여가지가 넘고 교외장학금도 34가지나 되어 장학금은 대체적으로 타교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말씀감사합니다만 85학년도 1학기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자세히알고 싶습니다.

▲金처장=장학금 총 예산의 30%가 장학금에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 학기 본교의 경우 1학년17%, 2학년20%, 3학년20%, 4학년10%로 총 1억8천8백여만원선이 지급되었읍니다. 물론 경우 잭퍼슨도 같은 비율이지요.

▲사회=본교에서도 신입생 유치를 위해 매년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혜택을 받은 학생이 일학후 한 학기만이라도 기준성적에 미달이되면 혜택에서 탈락시켰는데 과연 그러한 장학제도가바람직한가요. 오히려 신입생장학금을 줄여서 재학생에게 더많이 지급하는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金처장=성적미달로 장학금 지급에서 탈락된 장학금이 있을시에는 예체육특기실력장학금으로 대체되어 그대로 학생들에게 환원되고 있읍니다. 먼저 계속 장학금을 결정한 다음에 남은 것으로 그의 성적장학금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문=신입생 장학혜택을 받는 경우 장학금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사회=지난번에 지급되었던 동국80주년 장학금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알고싶읍니다.

▲金처장=동국70주년 장학금은 동국대학교 개교70주년을 기리기 위해 동창회에서 모금, 설립된 장학금으로 고시반 중심으로 30~40명의 학생에게 한학기당 15만원씩 지급되고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사회를 열어 숫자를 줄이는 대신 액수를 늘리므로써 현재 교외장학금의 수준인 1인당 50만원선으로 증액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각 단과대학당 3·5이상을 유지할 경우·군입대등 결격사유가 없을시 계속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2, 3, 4학년 중에서 수석에가까운 학생들을 뽑아 이미 1학기에는 지급했읍니다.

▲사회=동국 80주년을 맞아 동국80주년 장학금이 생긴다는데 그 목적과 발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처장=지금 학생처와 동창회가 추축이되어 협의 단계에있어 아직 체적인 계획안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고시는 분명히 학교의명예를 높이거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밑바탕으로 필요한 것이나 현재의 일장으로서는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金=불교학과, 선학과 등의 특수학과에만 지급되고 있는 본교 장학금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본교가 종합대학으로서 성숙해가는 마당에서그러한 혜택을 특수학과에만 주지말고 수혜폭을 넓혔으면 좋겠읍니다.

▲金처장=현재 승적을 가진 학생들 가운데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의 3과중 일정수준의 성적이상을 유지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2년전 차석 입학자에 한해 지급하는 장학금, 85년1학기에 성적우수장학금을 대폭 늘렸죠. 또 근로장학금을 늘렸으며 도서관등 각부서에 종래 17명이었던 것이 현재 1백여명으로 증원되었읍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노력하면서 공부하려는 자세를 심어주려는 취지에서 바탕두고자 생각됩니다.

▲문=예전에는 저희 대학교의 근로장학금이 타대학에 비해 훨씬 많았었는데 타대학과의 균형을 위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압니다.

근로장학금의 폭을 많이 늘리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근로장학금의 지급 액수는 만족한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金처장=장학금 예산의 30%가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 학기 본교의 경우 1학년17%, 2학년20%, 3학년20%, 4학년10%로 총 1억8천8백여만원선이 지급되었읍니다. 물론 경우 잭퍼슨도 같은 비율이지요.

▲사회=본교에서도 신입생 유치를 위해 매년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혜택을 받은 학생이 일학후 한 학기만이라도 기준성적에 미달이되면 혜택에서 탈락시켰는데 과연 그러한 장학제도가바람직한가요. 오히려 신입생장학금을 줄여서 재학생에게 더많이 지급하는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金처장=성적미달로 장학금 지급에서 탈락된 장학금이 있을시에는 예체육특기실력장학금으로 대체되어 그대로 학생들에게 환원되고 있읍니다. 먼저 계속 장학금을 결정한 다음에 남은 것으로 그의 성적장학금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문=신입생 장학혜택을 받는 경우 장학금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사회=지난번에 지급되었던 동국80주년 장학금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알고싶읍니다.

▲金처장=동국70주년 장학금은 동국대학교 개교70주년을 기리기 위해 동창회에서 모금, 설립된 장학금으로 고시반 중심으로 30~40명의 학생에게 한학기당 15만원씩 지급되고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사회를 열어 숫자를 줄이는 대신 액수를 늘리므로써 현재 교외장학금의 수준인 1인당 50만원선으로 증액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각 단과대학당 3·5이상을 유지할 경우·군입대등 결격사유가 없을시 계속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2, 3, 4학년 중에서 수석에가까운 학생들을 뽑아 이미 1학기에는 지급했읍니다.

▲사회=동국 80주년을 맞아

淨土思想의 한국적 전개

—「佛教文化연구소」 학술세미나

지난 8, 9일 양일간 불교文化研究院주최 「韓國佛教思想學術세미나」가 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淨土思想의 한국적 展開」을 주제로 열렸고, 또한 지난 8일에는 사범대학주최 「교육문제 심포지움」이 「고등학교고전문학교육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동국관 L301에서 열렸다。이에 本紙에서는 이에대한 개략적 설명과 소개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註>

淨土思想의 淵源및 그中心思想

楊白衣 (中國 文化大)

淨土라는 말은 불교공유의 보통명사로서 단지 彌陀佛土의 서방극락세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大小品 「般若經」 에서는 여러모로 아축佛淨土를 서술하고 있으며 이라는 불경중 있다。

대체로 佛教史를 말할때 아미타불의 名號를 불러서 西方淨土에 往生한다는 것은 印度에는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다。최초 전해진 아미타불 신앙은 一無量壽經 中에 최고의 3가의 번역이 있는데 내용은 대개 「아축佛國經」과 같아서 稱名念佛로 往生하는 思想은 없던 것이 魏譯 (252) 에 이르러 큰 변화가 생기는데 自力修行의 육리요소를 강소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稱名을 더하고 信心에 의지하여

□「파시즘과 民主主義」… "부패된 議會政治에선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

勞動者누른 大資本의 황금유희

李仁鎬
(연세대 통선문제연구소 연구원)

一、序

現代史에서 파시즘에 관한 빈번한 言及은 파시즘이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임을 일층하게 해준다。또한 개념상 혼란을 빚어 낼만큼 류의적이고 직선적인 역사과정의 인식에 의해서는 어떤 이론도도 출해낼수 없는 복잡한것이다。

이는 파시즘이 각국의 역사적 상황、문화의식、사회경제적 여건의 정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을 의미한다。

이를 나타냈을 의미한다。

파시즘이 出現한 社會는 自本主義體制 이며、그 지배적인 자본은 금융독점 자본이다。파시즘은 20세기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는 獨占金融資本主義의 위기에대처하고、國內的으로는 혁명적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첨예한 反革命의 暴力systm이다。

물론 반혁명이란 革命的상황은 전제하나 資本主義의 누적된모순의 폭발적 결과로 나타난 파시즘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뿐만아니라、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全構造的위기를 의미한다。

요컨대 파시즘은 과격하며 반동적인 社會運動勢力을 발본적방침과 수단으로 지도할으로써 부르조아체제의 위기의 배후를 찾는 자본주의사회의 일반적인 사회정치적 경향이다。

오늘날의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말을쓰고 변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즉、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질서의 확립을 구실로 나타날지도 모르고、또한 파시즘은 자기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위하여 극내적인 위기의 분출구를 대외적으로 마련할려는 위장술을 쓸지도 모른다。파시즘을 과거의 독일、이태리、일본등에서의 단순한 정치상황으로만 파악하거나 또는 민족적 특성、민주적 의식수준의 저하보만 고정적으로 파악할때、새로이 나타나는 파시즘에 대하여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그러므로 파시즘의 의적측면으로부터 출발하여 파시즘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악해야한다。

二、파시즘의 定義

파시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정의가 서로 맞서고 있다。하나는 구미의 선진자본주의의 견해로 파시즘을 복수적 극우정당 또는 군부와 관료등의 반동분자에 의한 정치적 독재로서 일단 재체제의 확립을 평면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입헌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인한 한다。뿐만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울러 배격하고、국가지상주의와 민족지상주의에 근거주의를 소리높이 부르짖음으로써 독재자의 신격화와 지도자 원리에입각한 사회의권위주의적 편성을 수반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각국의 社會主義運動의 견해로 파시즘을 현단계에 있어서의 독점자본의지배체제로 보는 정의이다。이견해에 따르면 파시즘이란 단순한 공업사회의 현상이 아니라 제국주의단계의 현상으로서、자유경쟁적인 초기자본주의가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체제로변절하면서 나타난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독점자본의 지배체제를 의미하며、의회제 및주의에의한 간접적 지배로서는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된 권력층이 찾아낸 또하나의 지배형태라 정의된다。

「네오 파시즘은 조작된 民意에 의하여 실질적 民主主義를 거부하거나 마비시킨 獨裁體制라 규정된다。

이들 두 견해는 各各 民主主義와 自由는 새로운 옷으로 단장하고 나타나는 파시즘 형태의 발전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일체의 부르조아反動에 對하여 무차별하게 파시즘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 공통점을 찾아 종합하면 파시즘은 意思의 自律性과 行爲의 自己決定性을 근본적 속성으로하는 民主主義의 原理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지배형태라고 할수있다。이런 점에서 파시즘의 독일적 표상인 나찌즘은 否定的反(Anti)主義로 一邊倒된 침략적인 전체주의적 지배형태였다。

이러한 이론바 古典的 파시즘에 對한 定義에 비해 第二次世界大戰이 파시즘의 敗北로 끝난 오늘날 새로운 파시즘이 등장하고있다。이것이 바로 네오파시즘 (Neo Fascism)이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民主主義의 날을쓰고 操作내지造作된 民意에 依하여 實質的으로 民主主義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지배형태라고 할수있다。이런 점에서만은 파시즘이 단체의 국가로부터 창수적 조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서 의 국민은 한에 對한 도시의 小市民과 農民의 反感증대、③細分된 分業과 專門化로인한 인텔리겐차와 기술자 및 근로자들의 기술적 니힐리즘 (Nihilism) 과 政治的 무관심、④매스컴의 마취작용에의한 지식의 斷片化의 方向感覺의 喪失、⑤모든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인 여러가지 분제의 合理的 調整의 가능성에 對한 懷疑와 絕望、⑥生意와 無力感에對한 補償으로서의 權威的 리더쉽 (카리스마) 에의 待望등이다。바로 이와같은 심각한 위기의식의 격증으로 말미암아 體制의 안정과균형상태가 파괴되고 더구나 旣成의 政黨이나 사회단체의 조직이 흔히 自主的으로 收拾할만한 能力과 창의력을 결하고 있을경우、즉 革命의 主體的 客觀的 狀況의 실화에 비하여 지배체제가 뒤늦어져 있는 정도에따라 그 「眞空」을 메꾸기 위해서 파시즘이 등장한다。

「네오 파시즘은 조작된 民意에 의하여 실질적 民主主義를 거부하거나 마비시킨 獨裁體制라 규정된다。

이들 두 견해는 各各 民主主義와 自由는 새로운 옷으로 단장하고 나타나는 파시즘 형태의 발전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일체의 부르조아反動에 對하여 무차별하게 파시즘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 공통점을 찾아 종합하면 파시즘은 意思의 自律性과 行爲의 自己決定性을 근본적 속성으로하는 民主主義의 原理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지배형태라고 할수있다。이런 점에서만은 파시즘이 단체의 국가로부터 창수적 조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서 의 국민은 한에 對한 도시의 小市民과 農民의 反感증대、③細分된 分業과 專門化로인한 인텔리겐차와 기술자 및 근로자들의 기술적 니힐리즘 (Nihilism) 과 政治的 무관심、④매스컴의 마취작용에의한 지식의 斷片化의 方向感覺의 喪失、⑤모든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인 여러가지 분제의 合理的 調整의 가능성에 對한 懷疑와 絕望、⑥生意와 無力感에對한 補償으로서의 權威的 리더쉽 (카리스마) 에의 待望등이다。바로 이와같은 심각한 위기의식의 격증으로 말미암아 體制의 안정과균형상태가 파괴되고 더구나 旣成의 政黨이나 사회단체의 조직이 흔히 自主的으로 收拾할만한 能力과 창의력을 결하고 있을경우、즉 革命의 主體的 客觀的 狀況의 실화에 비하여 지배체제가 뒤늦어져 있는 정도에따라 그 「眞空」을 메꾸기 위해서 파시즘이 등장한다。

파시즘은 심각한 사회의식격증으로 인한 체제균형과 괴리등의 「眞空」메꾸기위해 등장한다。

따라서 이런 意味에서 보면 파시즘은 하등의 참다운 「新體制」를 提示하는것은 아니다。한편 消極的인 보수주의나 시대착오의 中世主義는 아니고 실로 테크놀로지의 高度한 발전을 基盤으로하여 현대사회의 諸모순을 反革命、전쟁의 組織化의 의해서 一擧에 敎濟해보려고 하는 舊秩序에 복귀를 꿈꾸는 독점자본의 지배체제로 변질하면서 나타난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독점자본의 지배체제를 의미하며、의회제 및주의에의한 간접적 지배로서는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된 권력층이 찾아낸 또하나의 지배형태라 정의된다。

反革命을 투쟁목표로、行動主義만을앞세워 실용주의적、현실론의적 사상으로 논리결핍을 정당화시킨다。

이것에비해 발칸 日本에 있어서처럼 혁명형태의 舊제、소멸로인한 단순한 의존한 의회정치에대한 근본적 혁오감을 지닌 정치적 「획일화를 꾀할뿐만 아니라 이을 통한 反파시즘운동의 前衛組織이 미래에 댄두될 가능성마저 근절시켜 하는 초월적 국가의지배를 正常化하려는 것이다。

가상적국의 설정으로 인한 위기의식의 조장、지식계급의 육성으로 體制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고、매스컴을 독점하고、스포츠의 집중적 육성、도발적 오락등으로 思想的 反撥을 도취적으로 증발시키려하고、政治的 集權化와 절대주의를 강조하여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수립할려고한다。「파시즘의 원리」에 의하면 파시즘이란 歷史的 宗敎的 槪念이며、反個人主義的이어서 함상 국가편에 속하며 國家를 개인의 참다운 재확인하나、따라서 국가의 에는 개인과 국민은 단체는 있을 없으며、국민은 국가로부터 창수 조된 것이기 발전하는 때문에 국가로서 의 국민은 한에 對한 도시의 小市民과 農民의 反感증대、③細分된 分業과 專門化로인한 인텔리겐차와 기술자 및 근로자들의 기술적 니힐리즘 (Nihilism) 과 政治的 무관심、④매스컴의 마취작용에의한 지식의 斷片化의 方向感覺의 喪失、⑤모든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인 여러가지 분제의 合理的 調整의 가능성에 對한 懷疑와 絕望、⑥生意와 無力感에對한 補償으로서의 權威的 리더쉽 (카리스마) 에의 待望등이다。바로 이와같은 심각한 위기의식의 격증으로 말미암아 體制의 안정과균형상태가 파괴되고 더구나 旣成의 政黨이나 사회단체의 조직이 흔히 自主的으로 收拾할만한 能力과 창의력을 결하고 있을경우、즉 革命의 主體的 客觀的 狀況의 실화에 비하여 지배체제가 뒤늦어져 있는 정도에따라 그 「眞空」을 메꾸기 위해서 파시즘이 등장한다。

三、파시즘擡頭의 背景

파시즘은 第一次大戰後의 자본주의의 일반적위기대의 산물이라고 하고 있다。

19세기말로부터 20세기초에 걸쳐 금융독점자본의 지배체제가 확보되자 식민지획득을 위한 제국주의적 투쟁이 치열해져서 마침내 1차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그런데 궁핍과 끝은 즉 옴만이 연속되는 이 전쟁에、특히 독일과 이태리인중은 불만을 느꼈으며 大戰後 대량실업과 만성적인 농업공황으로인한 국내정치의 불안과 기성정당 및 議會의 부패에 무능력은 일반대중의 욕구불만을 더욱 격화시켜 파시즘은 발대한 반체제적인 정치적 에너지를 축적할 수가 있었다。

이와같은 위기속에서 나타나는 一般大衆의 精神狀況은 ①社會革命의 緊迫性에 對한 루조아지의 擴大된 恐怖、②프롤레타리아의 組織的 團結에 對한 도시의 小市民과 農民의 反感증대、③細分된 分業과 專門化로인한 인텔리겐차와 기술자 및 근로자들의 기술적 니힐리즘 (Nihilism) 과 政治的 무관심、④매스컴의 마취작용에의한 지식의 斷片化의 方向感覺의 喪失、⑤모든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인 여러가지 분제의 合理的 調整의 가능성에 對한 懷疑와 絕望、⑥生意와 無力感에對한 補償으로서의 權威的 리더쉽 (카리스마) 에의 待望등이다。바로 이와같은 심각한 위기의식의 격증으로 말미암아 體制의 안정과균형상태가 파괴되고 더구나 旣成의 政黨이나 사회단체의 조직이 흔히 自主的으로 收拾할만한 能力과 창의력을 결하고 있을경우、즉 革命의 主體的 客觀的 狀況의 실화에 비하여 지배체제가 뒤늦어져 있는 정도에따라 그 「眞空」을 메꾸기 위해서 파시즘이 등장한다。

四、파시즘의 類型과機能

파시즘 20세기에 있어서 갑핼린 反革命의 가장 전투적인 형태로 지금까지의 파시즘과는 두가지 발전형태를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네오 파시즘은 조작된 民意에 의하여 실질적 民主主義를 거부하거나 마비시킨 獨裁體制라 규정된다。

이들 두 견해는 各各 民主主義와 自由는 새로운 옷으로 단장하고 나타나는 파시즘 형태의 발전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일체의 부르조아反動에 對하여 무차별하게 파시즘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 공통점을 찾아 종합하면 파시즘은 意思의 自律性과 行爲의 自己決定性을 근본적 속성으로하는 民主主義의 原理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지배형태라고 할수있다。이런 점에서만은 파시즘이 단체의 국가로부터 창수 조된 것이기 발전하는 때문에 국가로서 의 국민은 한에 對한 도시의 小市民과 農民의 反感증대、③細分된 分業과 專門化로인한 인텔리겐차와 기술자 및 근로자들의 기술적 니힐리즘 (Nihilism) 과 政治的 무관심、④매스컴의 마취작용에의한 지식의 斷片化의 方向感覺의 喪失、⑤모든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인 여러가지 분제의 合理的 調整의 가능성에 對한 懷疑와 絕望、⑥生意와 無力感에對한 補償으로서의 權威的 리더쉽 (카리스마) 에의 待望등이다。바로 이와같은 심각한 위기의식의 격증으로 말미암아 體制의 안정과균형상태가 파괴되고 더구나 旣成의 政黨이나 사회단체의 조직이 흔히 自主的으로 收拾할만한 能力과 창의력을 결하고 있을경우、즉 革命의 主體的 客觀的 狀況의 실화에 비하여 지배체제가 뒤늦어져 있는 정도에따라 그 「眞空」을 메꾸기 위해서 파시즘이 등장한다。

反革命을 투쟁목표로、行動主義만을앞세워 실용주의적、현실론의적 사상으로 논리결핍을 정당화시킨다。

파시즘은 ①독일과 이태리에서와같이 광범위한 大衆的 基盤를만들 연후에 말하자면 「밑으로부터」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와、②德日本、불가리아、폴란드등지에서 보여진 것처럼 먼저 국가의 軍事力에 의하여 말하자면 「위로부터」 권력을 장악한연후에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그 기초를 점차 大衆속으로 펼쳐가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같은 두형태는①그 나라의 革命力의 組織化、②그 나라의 기존국가기구의 民主化、③파쇼化가 진행되어가는 동안에 혁명의 위기 (國內的危機) 와 전쟁의 위기 (對外的危機) 중 우열점으로에 따라 즉、對內的으로 혁신을 단행할 유발시키느냐、그렇지 않으면 對外戰爭을 유발시킴으로써 이를 계기로하여 대내적인 혁신을 단행하느냐에따라서 각각 規定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태리와 독일처럼 프롤레타리아의 조직화정도가、즉 혁명세력의 조직과 배체제로 본 정의이다。이견해에 따르면 파시즘이란 단순한 공업사회의 현상이 아니라 제국주의단계의 현상으로서、자유경쟁적인 초기자본주의가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체제로변질하면서 나타난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독점자본의 지배체제를 의미하며、의회제 및주의에의한 간접적 지배로서는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된 권력층이 찾아낸 또하나의 지배형태라 정의된다。

체제불만해소를위한 어용노래육성과 매스컴을 독점하고 스포츠의 집중적육성등으로 사상적 반발마취가 파시즘의 가상형국가 이다。

조직화의 정도가 낮을뿐아니라 또한 旣存國家機構속에 군부、관료、王制등과 같은 후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있는 서로 모순되는 부르조아계층의 연합과 속도는 서로 모순되는 부르조아계층의 연합과 속도는 서로 모순되는 부르조아계층의 연합과 속도

"화강암 국토에 대한 연구자료 보충이 시급"

수락산의 苦行이 아련히…

金昌煥 〈사범대·지리교육〉 [당선 소감]

못나기 地理學徒가 自身의 명예와 學科의 명예를 위해 걷어붙였던 결과치고 점수를 오르던일, 落葉을 밟는 너무나 뜻밖의 기쁨을안았다。지금 이 기쁨이 앞으로의 길고 때로는 어두운夢想의 길을 견디게해주고 격려해 줄 가슴속의 작은 등불로 날을것 같다。고생많으신 여러님과 家族들이 정말 좋아셔서 더욱 기쁘다。또한 이 영광이 지리과의 發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한안 눈을 밟으며 水落山 드릴다。

대학원 진학과 취직의 영광(?)을 기원하면서 아버님의 健康에…。

이며 한나의 outcrop을 더 발견하려다 길을 잃고 어두운 산속을 헤매던 일들이 아련히 떠오른다。

지금 다시 읽어면 열등이 붉어져 끝까지 다 볼수없는 지도로의 길을 견디게해주고 격려해 줄 가슴속의 작은 등불을 해주신 金昌煥교수님, 그리고 지리교육학과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또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준 李在雄군에게도…。

끝으로 보잘것없는 논문을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심사위원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水落山地域의 風化現象에 關하여

金昌煥 李在雄

제23회 본사학술상 자연과학분야 본상

I、序 論

I—1 研究目的

우리나라의 地質은 그 半以上이 花崗岩 花崗片麻岩으로 되어있다。이와같이 地表岩石의 相當한 부분이 花崗岩으로 되어있는 지역에서 花崗岩風化에 관한 문제는 매우큰 意味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硏究는 同一한 地域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地質構造的 特徵의 하나인 Joint를 調査하고 같은 지역에 발달해있는 대표적인風化現象의 하나인 tor와 Exfoliation의 特徵과 形態, 成因에관해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內容을 調査하여 정리함으로써 花崗岩 風化地形發達의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I—2 硏究方法

연구지역에 발달한 Joint와 Tor, Exfoliation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check list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하여 야외답사에 의점을 두었다。연구발점에서 joint관찰은 clinometer를 사용하여 joint set를 strike와 dip을 측정하였다。tor는 형태, 위치(稜線, 斜面, 溪谷) 규모를 측정하여 m로 표시하였다。Exfoliation는 고도와 위치별로 구분하였으며 규모와 Exfoliation height두께등을 측정하였다。야외답사시는 1:50,000, 1:25,000 (서울) 지질도를 이용하였다。

I—3 硏究地域의 地質과地形

본 연구지역인 水落山은 도봉동 및 京畿道 南楊州郡 別內面과 議政府市에 속한 山地로 최고봉 637.7m를 갖고 양 5km의 主稜線이 남북으로 발달해 있으며 남으로 떡등과개를 경계로 佛岩山과 이어지며 楸洞溪谷을 사이에 두고 道峰山과 마주보고 있다。또한 본 연구지역은 中生代의 靡岡系 佛國寺統의 花崗岩으로 되어 있으며 岩石의 差別侵蝕과 風化로 인한 殘丘狀의 老年期 山地이다。

II、Joint, Exfoliation, Tor의 槪念

II—1 花崗岩의 風化

일반적으로 花崗岩의 景觀은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典型的인 경관으로 뾰족한 靈頭를 비롯하여 巨大한 岩塊, Tor등과 같은 現象이 잘 나타나는 形態이고 다른 하나는 風化와 侵蝕이 相當히 進展된 低山性 乃至는 丘陵性의 景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온의 갑자기 변하는 일, 공기중의 수분이 상당히 틈으로 스며드는 일, 암석위에 생물이 번식하는 일 등이 오래 繼續되면 암석의 구성물질들은 變質되어 부스러지게 된다。이와같이 암석이 地表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風化라 하고 風化를 일으키는 作用을 風化作用이라 한다。

風化는 지표면에 노출된 암석이 분해되거나 붕괴하는 모든 營力과 결합된 작용으로 볼수있고 물리적인것과 화학적인 것으로 나눌수 있으나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서로 결합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편이 있다。

이와같은 풍화현상은 토양과 資源, 또한 土木工事, 自然災害등과같은 현상과 큰 관계를 가지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자연현상의 하나라고말할수 있다。

II—2 Joint

地表上에 存在하는 岩石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Joint이다。그러므로 암석의 調査硏究에 있어서 Joint는 가장 기본이 되는 內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Joint를 Himus(1954)는 tension이나 torsion에 의해 생긴 모든 암석에서 발견되는 垂直, 결산절, 또는 수평면의 分劃面을 말한다고 定義하였다。即 岩石의 물리적인 連續性을 斷絶하는 fracture혹은 分劃線을 말한다。

Joint의 形成原因은 多樣하나 一般的으로 sediment mass적 그들이 수축할 때 혹은 Tgneous body에서 그들이 液體狀態에서 固體狀態로 될때 생기는 tension force에 의해 發達하거나 地球의 外部層의 변형에 의한 方法에 의해서 形成되기도 한다。

Joint는 普通 平行한 group이나 set로 나타나며 일방으로 Joint set는 직각 또는 그와 비슷하게 교차하기도 한다。Joint사이의 간격은 數cm에서 數百m에 達하기도 하지만 單獨으로 나타나는 일은 전혀 없으며 地形成作用에 Joint의 지접적인 역할은 크지 않으나 侵蝕의 모든 營力을 돕고 있어 地形에 對한 間接的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II—3 Tor

Tor라는 말은 『똑바로 서있는 石塔』이라는 celtic語의 어원을 갖는 것으로 saprolite가 제거되고 核石이 불안정한 石塔처럼 쌓여 이루어진 岩塊地形과 주변보다 우뚝 솟은 독립성이 강한 돌더미 혹은 작은 丘陵형태로서 5~20m의 규모를 갖는 微地形을 Tor라고 한다。Tor는 원래 南西 잉글란드의 Dartmoor高原에 발달된 화강암의 岩塊地形을 가리키는 지방어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따라 학술용어로 정착되었다。

Tor의 成因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체로 심한 Weathering을 받은 지각의 화학적 풍화와 더불어 자연환경에 대한 節理의 진행되는 동안 차별적인 侵蝕作用에 기인하기도 하고 많은풍화작용을 받은 불규칙한 Joint가 존재하는 岩石斜面의 후퇴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암석의 구조지질적위치, 그리고 그에 따른 地域的 微氣候의 다양성등으로 설명할수 있다。

Tor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塔型, 城廓型, 卓狀型, 岩柱型, Donne Sum mit型등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이러한 Tor형태를 결정짓는데 있어 風化作用, 侵蝕作用, granular disintegration, frost action과학적 變形等과 물리적 風化率과 이의 다양한 關係, 그리고 局部的인 微地形또는 微氣候의 다양성이었다。또한 암석의 구조적인 특징과 조직, joints의 밀부, pattern, 발향 그리고 岩石의 Hardness등과 Tor의 형태를 결정하는 主要因子이다。

II—4 Exfoliation

Exfoliation이란 거대한 岩石이 自然的으로 曲面狀의 板으로 分離되는 것 또는 內核을 둘러싸고 있는 同心圓狀의 岩板의 一般的인 形態를 가진 風化岩石을 말한다。

대부분의 火成岩과 變成岩들은 比熱이 서로다른 鑛物 粒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열에 의해 팽창할 때는 構成鑛物을 각에도 內的壓力이 發生한다고 믿어지고 있다。花崗岩 Dome에서 보다의 節理이 양파처럼 벗겨지는 Exfoliation現象을 과거에는 이같은 이유로 발생한다고 알려졌으며 岩石來面部가 侵蝕으로 除去되면 압축으로 누르던 압력이 갑퇴되므로 그 압축에 의한 암석의 바깥쪽으로 팽창하여 얼마간의 두께를 가진 外殼이 생기게 되며 內部와의 사이에는 틈이 생기게 된다。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岩塊나 岩盤에서는 계속하여 曲面狀의 皮殼이 떨어져 나오게 된다。

氣候的인 측면에서 볼 때 종전에는 氣候變化가 심한 乾燥氣候下에서 Exfoliation이 生成되었다。이는 濕氣의 영향이 Exfoliation형성에 중요한 因子가된다고 생각할수있다。

이와같이 Exfoliation은 단순한 여러 작용이 아닌 荷重除去, 濕氣, 水和作用等 다양한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Outcrop 觀察

III—1 Joint OutCrop觀察

本 硏究地域에서 측정한 outcrop은 총40개로서 이중 irregular Joint와 curving joint를 제외한 38개의 측정치를 구하였다。여기서는 joint현象만을 敍述하고 나머지는 表1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本 硏究에서 지칭하는 河川이란 一時的인 流水現象을 제외하고 흐르는 유수현상으로 도 함부적으로 흐르는 유수현상으로 동에 있어서 절대의 心氣 발현의 로 노출된다。이는 인체의 生理·病理변화를 통한 관찰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문헌적 내용이 소홀히 취급된 같이 없지 않다。그러나 張·孫군의 이에 관한 계통적인 연구·정리는 학문적인 면이 돋보이는 바가 되고 있다。그림7-a는 N방향이며 outcrop을 W방향에서 본 구조선의 발달로 뚜렷하지는 않지만 세 부분의 block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동일한 암석내에서도 다양한 구조적 특성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tor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II—2 Tor Outcrop觀察

본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Tor outcrop은 총 35개로서 여기서는 특징있는 現象만을 서술하였으며 나머지는 表8~13에서 고찰하기로 하였다。

outcrop11 (그림9)은 고도2백20m의 사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Exfoliation hang의 두께는 0.3cm이며 剝離作用으로 인하여 bed rock과 Exfoliation 사이의 틈이 더욱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本 outcrop 좌측에는 剝離가 형성된후 떨어져 나간 동한 岩塊사이에는 植生이 자라고 있다。특징적인 것은 기반암에 flake가 발달되어 있으나 Exfoliation자체에는 flake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암석조직의 차이와 구성분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本outcrop은 NE방향으로 발달하고있다。

outcroP 24 (그림10)은 고도의 4백80m 능선에서 나타나며 SE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hang의 두께는 3~4cm이고 hammer break되며 사면경사각은 22°로서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3결으로 block으로 형성되어 있다。Exfoliation이 여러 결으로 Patternal Cross Pattern으로 Joint Pattern과 Tor형태에 영향을 줄을 알 수 있으며 Exfoliation 또한 Tor형태에 主要因子가 됨을 알 수 있다。또한 A block의 모서리를 보면 거의 둥근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Tor最上部에 있어 비, 바람등과 같은 각종 風化요소들과 더욱 강하게 접촉한 결과로 생각된다。

outcrop50 (그림7)은 고도 6백30m의 주능선에 발달한 대표적인 단발형 tor의 outcrop이다。이 tor는 하단부의 기반암상에는 flalce가 발달해 있으며 Exfoliation면에는 flake가 없으나 기반암상에는 절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백75m의 계곡에서 나타나며 규모는 outcrop은 총 4개로서 사면·능선·계곡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며 탈락·성광·탑상형등이 나타나고 있다。

Outcrop40 (그림6)은 해발고도5백40m의 사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피라밋 형태이다。높이 7m, 폭 10m의 규모로 사면각은 10도정도이며 Flake가 발달해있다。A면에는 捕獲岩이 있고 基盤岩인 B에는 Joint를 따라 소나무등 식생이 자라고있다。이는 風化를 더욱 促進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D면의 下部에는 Exfoliation이 발달하고 있다。block 即 A,B,C,D,E block라 하부에 Tafoni가 형성되어 있다。본 outcrop의 6개의 block이로 형성되어 있으며a,b,c,d,e의 Joint에 의하여 뚜렷하게 區分된다。Joint Pattern과 Tor형태에 영향을 줄을 알 수 있으며 Exfoliation 또한 Tor형태에 主要因子가 됨을 알 수 있다。또한 A block의 모서리를 보면 거의 둥근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Tor最上部에 있어 비, 바람등과 같은 각종 風化요소들과 더욱 강하게 접촉한 결과로 생각된다。

outcrop50 (그림7)은 고도 6백30m의 주능선에 발달한 대표적인 단발형 tor의 outcrop이다。이 tor는 하단부의 기반암상에는 flalce가 발달해 있으며 Exfoliation면에는 flake가 없으나 기반암상에는 절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백75m의 계곡에서 나타나며 규모는 outcrop 82 (그림·11)는 고도1백63cm, 輪面傾斜角은 55°, hang의 두께는 1cm정도이다。현재 형성된hang에는 약 1cm가량 hang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으며 이끼가 자라고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도 剝離 내지는 풍화가 계속됨을 알 수 있다。

V、結 論

1、Joint

i) strike는 NE방향으로 주된 경향성을 나타내며 이로 미루어 추가 령열부과의 상관관계를 알수 있다。

ii) dip은 60도이상의 고각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水落山 능선부분의 결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Tor

i) Tor의 위치는 능선Tor가 가장 우세하며 그 다음 사면, 계곡Tor는 매우 희박하며 Tor의 위치와 고도는 상관관계가 있다。

ii) 규모는 1~10m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block형태는 거의 風化되지 않은 상태 (口型)의 block이 우세하다。그리고 Tor유형은 單塔型이탈월 하다。

3、Exfoliation

i) Exfoliation의 高度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며 위치별로는 斜面에어느 정도 密集되어 있다。규모는 대부분이 80cm이하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ii) Exfoliation hang의 두께는 3cm이하가 탁월하다。Exfoliation의 어느 발향으로도 작용한다。

4) 本 地域의 Joints의 dip이 高角을 이루는 것은 Tor의 형태를 결정짓고 급경사의 綫線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인이 된다。

그러나 Joint와 Exfoliation의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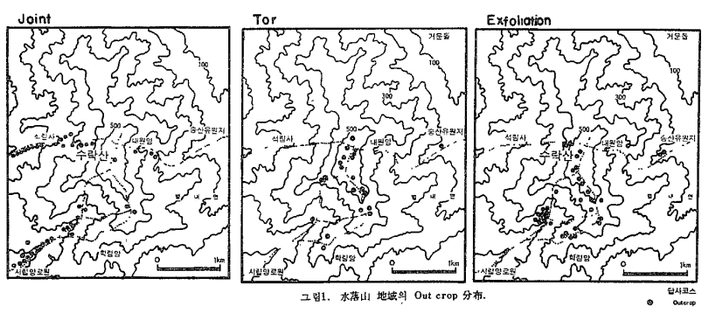


그림1. 水落山 地域의 Out crop 分布.

그림2. Outcrop 4 (N62°E, 76°SE)

그림3. Outcrop. 6 (N85°E 64°NW, N3°W 84°NE)

그림4 Outcrop. 21 (N10°W 90°SW, N80°E 61°NW)

그림5. Outcrop. 23 (N29°E, 82°NW)

그림6. Outcrop. 40 (파라밋 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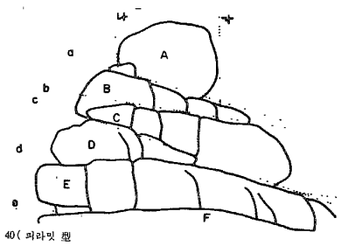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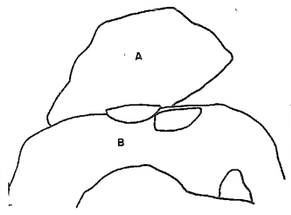


그림7-a' Outcrop. 50 (單塔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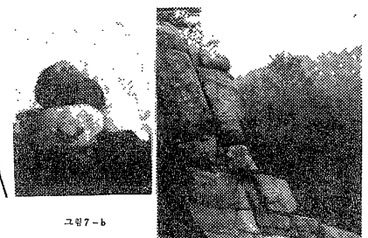


그림7-b

그림8). Outcrop. 83 (單塔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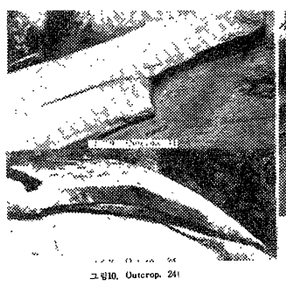


그림10. Outcrop. 241

그림11. Outcrop.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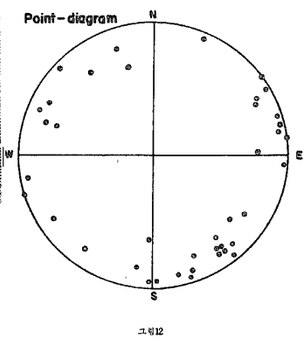


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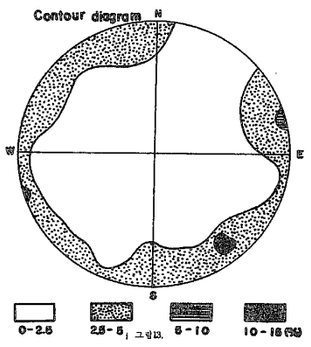


그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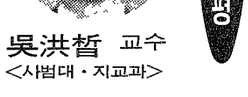
▲本紙에서는 지면관계상 관계표를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TOR는 斜面上에 결집분포

수락산은 단탑형 石塔이 탁월해

심사평

吳洪哲 교수 〈사범대·지교과〉



金昌煥군의 「수락산지역의 風化現象」은 연구과정에서 82개의 靈頭(outcrop)를 실지조사하여 증자료로 삼았을 뿐 아니라, 20여개의 국내의 관련논문의 引用, check list와 Contouar Diagram을 활용하는 등 방법론상 學部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더우기 연구결과로서 NE방향으로 작용한 Joint Strike의 秋歌嶺裂谷과의 관련성, 능선상에 집중된 Tor (石塔)의 암석조직과 微氣候의 영향, Exfoliation (石板)의 위치와 고도가 상호관계 있음을 해명하였다。

李敏雄 교수 〈농과대·농생과〉

DEP처리, 해충방제 시도와 분석등 좋아

東洋醫學 연구 정리 실증적 기초가 부실

東洋醫學에서 魂魄은 人體生命活動에 있어서 정신과 육체의 기본적인 물질대사 기전이나 자율신경계 등과의 비교관찰을 통하여 설명한 특징적 구명은 漢醫學의 객관화를 실어주는 발향제시가 되리라 믿는다。

다만 원리적인 추구에 앞서 기본적인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도 강조해 둔다。

崔達永 교수 〈한의대·한의과〉

제23회 本社 학술상(인문과학분야 장려상)

○…… 本社 학술상 인문과학분야에는 本賞이 없이 장려상 두편만이 입상하여 아쉬움을 남겼다。장려상 논문으로 ……○
○…… 로는 김학량 (국교과3) 군의<Situaiton과 국어교육(말하기) 의 방향>과 한재순 (묵윤과3) 군의<실천윤리 ……○
○…… 로서의 공자사상>등 2편이었으나 本社의 부득기한 사정으로 인하여 本紙에는 김학량君의 논문만을 게 ……○
○…재한 실게 되었읍니다。아울러 紙面 관계상 일부 참고 도면과 내용일부를 中略하게 됨을 밝혀둔다。<편집자註> ……○

Ⅰ、序論

인간이 動物과 구별되는 여러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言語를 사용하는 점이며 인간을 萬物의 靈長이라 할 수 있는 것은 思考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社會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 생활을 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言語의 전달과 思考의 媒體로써 사용하고 있다。즉 사람이 사회 생활과 같은 집단 속의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다면 他動物과 구별될 수 있는 言語라는 것이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언어란 趣勢에 따라 言語를 사용하는 인간과 그 인간이 몸담고 있는 社會 속의 Situation의 意味를 연구하는것은 효율적 言語敎育(말하기영역) 을 위해 더욱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먼저 話用論上의 Situation에 대한 理解를 넓히고 Speech act와 생성 변형규칙에 있어서의 Situation의 문제점을 알아본후, 국어교육 (말하기영역)에 있어서의 Situation의 중요성과, 현행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말하기 영역에 대한 實態와 問題點을 살피고 끝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국어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考慮해야할 敎授法의 提示및 국어교육의 方向을 提言하고자 한다。

Ⅱ、Situation과 言語行爲

Ⅰ、Situation의 意味

統辭論, 意味論과 함께 記號學의 三部門을 이루는 話用論은 언어행위에 있어서 언어의 사용자와 Situation에 따르는 話題의 의미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眞理値를 추구하는 의미론의 연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의미론과 화용론을 합해 있어서 Gresswell(1973)은 話用論을 意味論的 話用論과 話用論的 話用論으로 나누고 의미의 일부가 화맥에 따르는 경우를 전자, 의미 자체가 완전히 화맥에의 존하는 경우를 후자로 부르는데 이는 話用論的 기술이 文의 의미를 지배한다는 뜻이다。

Speech act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話者와 聽者, 그리고 話題의 의미를 결정지는 사회적 장면이 필수한데 시공적 장면이 話者의 실현구조를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호화한 표면구조에 있어서의 상황적 의미변화까지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言語的 장면을 뜻한다。

Speech act에 있어서 Situation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話用論의 영역에 대한 모리스의 도식(그림-1)을 알아보자。

(그림-1)의 B에서 빗금친 삼각형은 話者와 聽者가 統辭論的 知識을 바탕으로 Speech act를 행하였을때 語彙의 Conceptual Structure와 Surface Structure를 통해 받아들인 聽者의 Conceptual Structure 간의 의미의 변화를 나타낸다。따라서, 빗금 친 삼각형의 면적은 Speech act 상에 있어서 의미의 차를 조율하게 되는 situation의 영역을 뜻하며, 그림 C는 B에서보다는 총괄하게 Situation의 제시가 효과적이었을을 나타낸다。

결국 Situation은 話者와 청자 사이의 어떤 특정한 공인이 있었을 때, 그 상황적 공인을 알지못하는 제3의 話者는 그 화제를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話用論이란 형태론과 의미론의 초 위에서 형태론과 의미론의 연장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本稿에서 고찰할 Situation이란 그림 B·C의 빗금친 부분을 의미하며 A에서와 같이 삼각형의 폭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言語學의 궁극적 목표의 달성이라 하겠다。

<사범대·국교과>

김 학 량

狀況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말에 있어서 對話장면의 話用脈에 대한 理解는 Speech act 효율적 성공은 물론, 뒤에서 다루어질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발화를 제시해 준다。그러면 이러한 Situation이 言語 行爲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자。

2、Speech act 과정과 Situation의 변화

우리는 인간이 아주 상세하게 深層構造를 묘사할수 있는 인간의 認知 能力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지만, 深層構造와 表層構造사이의 관계가 좀더 밀접하게 제시하고 일상생활 언어인 말하기 교육의 효과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ituation」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과 말하기 교육을 위한 政策的 수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요청된다는 것을 비교적 條理있게 논술하였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언어이론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용어의 不統一, 表現의 不統一과 明確과 文章의 斬新性이나 論旨의 獨創性에도 미흡함이 엿보여 않아 아쉬움을 추천한다。〈崔世和〉

<불교대·불교과>

權奇悰 교수

「人間의 本性에대한 考察」논문은 그 論理展開上 체제가 미약하다。

예를 들면 性善說과 性惡說의 역사적 흐름을 살피지 않고 心理的 관계에서만 설명하였음으로 哲學敎育的으로는 타당치않다。

「實踐倫理로서의 孔子思想」은 孔子思想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그러나 孔子思想이 實踐倫理의 근원은 누구나 잘알고 있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현실이 있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이면의 논리전개가 미약하고 나아가 時代的 意義가 부각되지 못했다。

「窓의 運動槪念과 實體」는 論題선정에 있어 교과내용이 쓰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인함을 實例와 통계로 제시하고 일상생활 언어인 말하기 교육의 효과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ituation」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과 말하기 교육을 위한 政策的 수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요청된다는 것을 비교적 條理있게 논술하였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언어이론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용어의 不統一, 表現의 不統一과 明確과 文章의 斬新性이나 論旨의 獨創性에도 미흡함이 엿보여 않아 아쉬움을 추천한다。〈崔世和〉

<문과대·국문과>

金英培 교수

「實踐倫理로서의 孔子思想」은 孔子思想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그러나 孔子思想이 實踐倫理의 근원은 누구나 잘알고 있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현실이 있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이면의 논리전개가 미약하고 나아가 時代的 意義가 부각되지 못했다。

「窓의 運動槪念과 實體」는 論題선정에 있어 교과내용이 쓰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인함을 實例와 통계로 제시하고 일상생활 언어인 말하기 교육의 효과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ituation」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과 말하기 교육을 위한 政策的 수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요청된다는 것을 비교적 條理있게 논술하였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언어이론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용어의 不統一, 表現의 不統一과 明確과 文章의 斬新性이나 論旨의 獨創性에도 미흡함이 엿보여 않아 아쉬움을 추천한다。〈崔世和〉

<문과대·사학과>

曺永祿 교수

「實踐倫理로서의 孔子思想」은 孔子思想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그러나 孔子思想이 實踐倫理의 근원은 누구나 잘알고 있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현실이 있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이면의 논리전개가 미약하고 나아가 時代的 意義가 부각되지 못했다。

「窓의 運動槪念과 實體」는 論題선정에 있어 교과내용이 쓰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인함을 實例와 통계로 제시하고 일상생활 언어인 말하기 교육의 효과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ituation」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과 말하기 교육을 위한 政策的 수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요청된다는 것을 비교적 條理있게 논술하였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언어이론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용어의 不統一, 表現의 不統一과 明確과 文章의 斬新性이나 論旨의 獨創性에도 미흡함이 엿보여 않아 아쉬움을 추천한다。〈崔世和〉

<문과대·철학과>

宋錫球 교수

「實踐倫理로서의 孔子思想」은 孔子思想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그러나 孔子思想이 實踐倫理의 근원은 누구나 잘알고 있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현실이 있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이면의 논리전개가 미약하고 나아가 時代的 意義가 부각되지 못했다。

「窓의 運動槪念과 實體」는 論題선정에 있어 교과내용이 쓰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인함을 實例와 통계로 제시하고 일상생활 언어인 말하기 교육의 효과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ituation」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과 말하기 교육을 위한 政策的 수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요청된다는 것을 비교적 條理있게 논술하였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언어이론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용어의 不統一, 表現의 不統一과 明確과 文章의 斬新性이나 論旨의 獨創性에도 미흡함이 엿보여 않아 아쉬움을 추천한다。〈崔世和〉

<사범대·국교과>

崔世和 교수

「鳥丸族小考」는 論題선정에 대한 小考」는 논문구성에 있어 Ⅱ장을 Ⅳ장 이후로 한단는지, Ⅳ·Ⅴ장은 합쳐서 서술한단는지 Ⅳ장에 또 발음을 단독먼서 그 기술을 심빈성있게 하려면 거론된 어휘에 대한 사상·조사입시·조사방법등 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며, 기존 업적도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실천…」공자사상 이해에 노력

文章의 斬新性·독창성 미흡

「실천…」공자사상 이해에 노력

文章의 斬新性·독창성 미흡

「鳥丸族小考」는 論題선정에 대한 小考」는 논문구성에 있어 Ⅱ장을 Ⅳ장 이후로 한단는지, Ⅳ·Ⅴ장은 합쳐서 서술한단는지 Ⅳ장에 또 발음을 단독먼서 그 기술을 심빈성있게 하려면 거론된 어휘에 대한 사상·조사입시·조사방법등 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며, 기존 업적도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심 사 평

<불교대·불교과>

權奇悰 교수

「人間의 本性에대한 考察」논문은 그 論理展開上 체제가 미약하다。

예를 들면 性善說과 性惡說의 역사적 흐름을 살 다음을 수 있었다。

또 註를 적재적소에 달지 못하고 있으며 인용문을 때로는 飜譯하고 때로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일관성이 없다。論題의 展開에도論이 부족하다。

<문과대·국문과>

金英培 교수

「實踐倫理로서의 孔子思想」은 孔子思想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그러나 孔子思想이 實踐倫理의 근원은 누구나 잘알고 있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현실이 있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이면의 논리전개가 미약하고 나아가 時代的 意義가 부각되지 못했다。

「窓의 運動槪念과 實體」는 論題선정에 있어 교과내용이 쓰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인함을 實例와 통계로 제시하고 일상생활 언어인 말하기 교육의 효과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ituation」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과 말하기 교육을 위한 政策的 수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요청된다는 것을 비교적 條理있게 논술하였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언어이론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용어의 不統一, 表現의 不統一과 明確과 文章의 斬新性이나 論旨의 獨創性에도 미흡함이 엿보여 않아 아쉬움을 추천한다。〈崔世和〉

<문과대·사학과>

曺永祿 교수

「實踐倫理로서의 孔子思想」은 孔子思想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그러나 孔子思想이 實踐倫理의 근원은 누구나 잘알고 있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현실이 있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이면의 논리전개가 미약하고 나아가 時代的 意義가 부각되지 못했다。

「窓의 運動槪念과 實體」는 論題선정에 있어 교과내용이 쓰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인함을 實例와 통계로 제시하고 일상생활 언어인 말하기 교육의 효과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ituation」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과 말하기 교육을 위한 政策的 수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요청된다는 것을 비교적 條理있게 논술하였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언어이론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용어의 不統一, 表現의 不統一과 明確과 文章의 斬新性이나 論旨의 獨創性에도 미흡함이 엿보여 않아 아쉬움을 추천한다。〈崔世和〉

<문과대·철학과>

宋錫球 교수

「實踐倫理로서의 孔子思想」은 孔子思想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그러나 孔子思想이 實踐倫理의 근원은 누구나 잘알고 있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현실이 있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이면의 논리전개가 미약하고 나아가 時代的 意義가 부각되지 못했다。

「窓의 運動槪念과 實體」는 論題선정에 있어 교과내용이 쓰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인함을 實例와 통계로 제시하고 일상생활 언어인 말하기 교육의 효과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ituation」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과 말하기 교육을 위한 政策的 수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요청된다는 것을 비교적 條理있게 논술하였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언어이론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용어의 不統一, 表現의 不統一과 明確과 文章의 斬新性이나 論旨의 獨創性에도 미흡함이 엿보여 않아 아쉬움을 추천한다。〈崔世和〉

<사범대·국교과>

崔世和 교수

「鳥丸族小考」는 論題선정에 대한 小考」는 논문구성에 있어 Ⅱ장을 Ⅳ장 이후로 한단는지, Ⅳ·Ⅴ장은 합쳐서 서술한단는지 Ⅳ장에 또 발음을 단독먼서 그 기술을 심빈성있게 하려면 거론된 어휘에 대한 사상·조사입시·조사방법등 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며, 기존 업적도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실험에서 본 국어교육(말하기)의 방향

국어교육인 문자언어에 과잉편중

國語生活에 알맞는 언어기능 습득 필요해

이러한 Modified Structure의 변형 과정은 (그림2) 에서와 같은 실증구조와 표면구조 간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개인차를 갖게 되며, 결국 이러한 개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화용론이 필요한 것이다。즉, 「I was standing near the bank.」라는 표층구조는 『내가 둑 (堤防) 근처에 서 있었다』라는 두 가지의 Conceptual Structure를 갖게 되는 A의 경우이며『The Gots want another war and they are quarrelsome.』라는 실층구조는 『The Gost, who are quarrelsome, want another war.』라『The quarrelsome Gots want another war.』라는 서로 다른 표층구조는 나타날 수 있는 B의 경우이다。따라서 Speech act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어의 형식이 지닌의 모호성을 분간하여 분명하게 전달하기위해서 話者와 聽者 사이에 언어외적 상황 곧 Situation이 필요하게된다。

인 思考로 記號化하는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림의 A의 예문과 달리 話者의 실리적 Situation까지 이해하여야 그 의도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자。

『Steve or Sam and Bob will PRESENT come.』이라는 하나의 문장은 다음의 두 가지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1)에서는 Steve와 Sam중 어느 하나와 Bob가 오리라는 뜻이며 (2)에서는 steve가 오거나 Sam과 Bob가 함께 오리라는 뜻으로 (그림5)에서 보듯이 (그림2)의 A의 예문인 話者와 聽者 사이에 묵시적인 공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올바른 언어 행위를 이룰수있으나, 위의 예문에서는 현장적 Situation이 제시되지 않기때문에 실제로 Situation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이러한 Speech act에 있어서의 Situation에 따른 의미의 모호성은 상황 의존도가 큰 우리말에 있어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의 一端은 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Situation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그頻度가 거의 0에 가까우며, 상대적으로 읽기 領域이 급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국어 교육의 발향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룰 수있는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를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문교부 교과 과정의 편성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습평가 상황과의 연관성이 없는 二元的인 상황의 결과라는것을 인지해야 한다。

즉(그림 7)의 I의 결과는 4領域이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한다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의 意圖에는 어긋난는 것이지만 Ⅱ와비교할때 실생활의 사용도의 比重과 역비례 현상을 나타내는 점은 근본적으로 말하기 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원인이되고있다。

Ⅲ、국어교육 (말하기 영역)에있어서의 Situation의 중요성과 말하기교육의 실태

이제까지 언어행위와 Situation과의 불가분의 必然的관계를 살펴보았다。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Situation이 국어교육 (말하기 영역) 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야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한다。國語는일반언어의 범주에 속하며 일반언어의 구체적 특성을 지니고있으며 구현되므로 언어교육은 곧 국어교육의 문제라하겠다。美國의 언어교육학자 N·Brooks는 언어교육의 성격을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언어학습의 유일 지상의 사실이 어떤 문제해결이나 냉용 이해가 아니라, 습관의 형성과 이해하여 학습한 데 起因한다는 것도 알아야한다』는 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습의 목표라고 한 습관화에 역점을 두었듯 Situation의 습관화는 話者와 聽者간의 완벽한 전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국어교육은 흔히 言語四分節 (Four Fold aims)로 나타내며 크게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치중하고 있다。

이는 (그림7) 에서보였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言語 言語 전체의75%를 차지하는 현상에 견주어 볼때 국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실생활적 국어 교육은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실생활적 국어 교육은 결국 話者의 입장인 이해 각의 음성 언어를 통한 유기적 전달 기술을 길러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話者와 聽者 사이에 생기는 Situation에 따른 意義性을 바르게 分別 認識할 수 있도록 평소의 국어교육 (말하기 영역) 을 통해 이를을 경험 축적해야 한다。

Situation의 경험이 언어 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하고 있음은 모국어와 외국어 습득과정에 있어서 매우 명백해진다。(그림 5)은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배당된 국어와의 국어의 수업 시간이다。국어와 의 국어에 대한 배당 시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학년을 통해 비슷한 추세으로 책정되었다。그런데 국어에 대한 주당 학습 시간의배당은 모국어에 대한 統辭論的 언어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 대상을 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결국 이들 배당시간은 통사론적 언어 능력을기초로 한 학용에 대한 습득 과정이라 볼 수 있다。

Me Neill의 「The Creation of Language by Children」에서『생후 18개월이면 아동들은 간단한 二語文이나 三語文을 만들 수있고, 4세가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構文型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생산할 수 있다。그런므로, 적어도, 統辭論에 관한한 언어는 약 30개월 이내에 습득된것이다」라고 하였다。우리는 학습에 있어 (그림5)에서 보듯이 본국어 배당 시간과 비슷한 주당4~5시간을 6년간 학습하며 대학과정 4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障礙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이 곧 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Situation의 缺如된 단순한 文字 敎育과 음성언어 교육과의 차이를 가중시켰을 뿐이다。이러한 사실은 大試制度의 폐단과 國語文敎政策上의 문제라하겠지만 교사들의 말하기 교육의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교육 방향의 提示는 절실한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Situation과 국어 교육(말하기 영역)의 實態를 土臺로 한 말하기 교육의교수법에대한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音聲 言語 指導의 必要性을 再認識토록 한다。國語 敎育의 目標가 「日常生活에 必要한 國語의 正確한 理解와 使用」, 『現代人의 國語生活에 알맞는 言語 技能의 習得』으로 볼 때, Situation과 Context에 알맞는 發音, Public Speech <공중연설에서의 말하기> 能力의 養成 등은 말하기 교육을 통한 國語 敎育 目標에의 現實的 接近이라 하겠다。

둘째, 말하기 교육의 領域으로서 討議法과 劇化法을 충분히 活用하여야 한다。劇化法은 劇中의 事件과 人物에 沒頭하여 人格을 醇化시키고, 生活속의 말의 理解를 깊게한다。「사회는 언어활동에 의하여 造成되며 談話, 發言들이야말로 사회활동에대한 가장 直接的인 洞察力을 우리에게 주고 一體가 되는 일에 한몫을 본다」고 한 Leonard Bloomfield의실제적 Situation을 통해 生活 言語의 기능을 습득한다는점을 뜻한다。

세째, 敎師의 설실성이다。學級인원의 過密化 限定된 시간 내에서 一定量의 他領域과 아울러 말하기 교육을 효율적으로 指導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當面 問題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교사의 자세에 따라 어느 정도 解決될 수도 있다고 본다。국어과 교사는 授業 時間 以外의 시간을 活用해서 會話 形態 (1對 多) 會話形態 (1對衆) 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周期別로 모든 학생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몇 사람만의 發言의 獨占을 막아야 한다。또 마이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語調, 聲量, 速度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청각 교재의 충분한 활용이 요구된다。

교사는 학생이 Situation에 부합된 올바른 말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때 그 Situation의 명확한 제시 지도가 필요하다。

네째, 언어 환경에 대한 습관화이다。지식이나 이해에 앞서 습관, 태도, 생활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즉 보고 느끼는 장면에 따른 언어 환경속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따라서 한 나라의 언어를 지도함에 있어서 그 나라문화와 관습을 병행시켜 지도해야하며 Situation에 일치하여 기본문형에서 벗어나 머리 속에 형성된 그림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말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Ⅳ、Situation을 考慮한 國語敎授法

국어 교육에 있어서 말하기 領域의 현재의 교육 실태는 강의법과 문답법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일관되어 왔다。즉 Situation 속에서의 진정한 音聲 言語의 교육은 거녀 이루어지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더우기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音聲 言語지도가 대화·회화·공화와 같은 사회적 생활면에서나 문답·토의·토론과 같은 문화적생활면에 관계된 교육 실태에 비교될 때 지나치게 뒤떨어진 후진성을 크게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그림7)의 Ⅱ를 볼 때 말하기 교육의 (音聲 言語) 비중이 문자언어보다 적어도 같은 상태로는 다루어져야 할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개편된 신 중·고등학교 국어과교육 과정에서는 구 교과 과정에비해 작문 (쓰기) 교육의 강화를 보여 音聲 言語의 교육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보인 文字 敎育과 음성언어 교육과의 역비례적인 현상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Situation의 의미와 말하기 교육에 있어서의 Situation의 적용은, 국어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전체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Situation의 提示를 필요로 하는 討論, 이야기, 演劇, 演說 부분은 말하기 領域 자체의 3분의 1수준에 비하면 그문제해결이나 냉용 이해가 아니라, 습관의 형성과 이해하여 학습한 데 起因한다는 것도 알아야한다』는 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습의 목표라고 한 습관화에 역점을 두었듯 Situation의 습관화는 話者와 聽者간의 완벽한 전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국어교육은 흔히 言語四分節 (Four Fold aims)로 나타내며 크게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치중하고 있다。

이는 (그림7) 에서보였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言語 言語 전체의75%를 차지하는 현상에 견주어 볼때 국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실생활적 국어 교육은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실생활적 국어 교육은 결국 話者의 입장인 이해 각의 음성 언어를 통한 유기적 전달 기술을 길러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話者와 聽者 사이에 생기는 Situation에 따른 意義性을 바르게 分別 認識할 수 있도록 평소의 국어교육 (말하기 영역) 을 통해 이를을 경험 축적해야 한다。

그런데,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話者와 聽者 사이에는 (그림4) 에서와같이 傳達 經由의과정에 話者와 聽者를 연결하는 Transition이 존재한는데, 이 Transition이 어떻게 운용되는가 하는 問題는 話者와 聽者사이의 衆聞 狀態를 구성해주는 Situation의 영향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결국 Encoding되는 순간부터 Comprehension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과정이 Modified Structure와 같이, Situation에 支配받는 것이다。

話者는 자기가 傳達하고자 하는 것을 效果있게 傳達하는 個人 表現과 技術을 육성하는 것이고, 聽者는 理解力의 기술을 길러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話者와 聽者 사이에 생기는 Situation에 따른 意義性을 바르게 分別 認識할 수 있도록 평소의 국어교육 (말하기 영역) 을 통해 이를을 경험 축적해야 한다。

Situation의 경험이 언어 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하고 있음은 모국어와 외국어 습득과정에 있어서 매우 명백해진다。(그림 5)은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배당된 국어와의 국어의 수업 시간이다。국어와 의 국어에 대한 배당 시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학년을 통해 비슷한 추세으로 책정되었다。그런데 국어에 대한 주당 학습 시간의배당은 모국어에 대한 統辭論的 언어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 대상을 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결국 이들 배당시간은 통사론적 언어 능력을기초로 한 학용에 대한 습득 과정이라 볼 수 있다。

Me Neill의 「The Creation of Language by Children」에서『생후 18개월이면 아동들은 간단한 二語文이나 三語文을 만들 수있고, 4세가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構文型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생산할 수 있다。그런므로, 적어도, 統辭論에 관한한 언어는 약 30개월 이내에 습득된것이다」라고 하였다。우리는 학습에 있어 (그림5)에서 보듯이 본국어 배당 시간과 비슷한 주당4~5시간을 6년간 학습하며 대학과정 4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障礙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이 곧 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Situation의 缺如된 단순한 文字 敎育과 음성언어 교육과의 차이를 가중시켰을 뿐이다。이러한 사실은 大試制度의 폐단과 國語文敎政策上의 문제라하겠지만 교사들의 말하기 교육의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교육 방향의 提示는 절실한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Situation과 국어 교육(말하기 영역)의 實態를 土臺로 한 말하기 교육의교수법에대한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音聲 言語 指導의 必要性을 再認識토록 한다。國語 敎育의 目標가 「日常生活에 必要한 國語의 正確한 理解와 使用」, 『現代人의 國語生活에 알맞는 言語 技能의 習得』으로 볼 때, Situation과 Context에 알맞는 發音, Public Speech <공중연설에서의 말하기> 能力의 養成 등은 말하기 교육을 통한 國語 敎育 目標에의 現實的 接近이라 하겠다。

둘째, 말하기 교육의 領域으로서 討議法과 劇化法을 충분히 活用하여야 한다。劇化法은 劇中의 事件과 人物에 沒頭하여 人格을 醇化시키고, 生活속의 말의 理解를 깊게한다。「사회는 언어활동에 의하여 造成되며 談話, 發言들이야말로 사회활동에대한 가장 直接的인 洞察力을 우리에게 주고 一體가 되는 일에 한몫을 본다」고 한 Leonard Bloomfield의실제적 Situation을 통해 生活 言語의 기능을 습득한다는점을 뜻한다。

세째, 敎師의 설실성이다。學級인원의 過密化 限定된 시간 내에서 一定量의 他領域과 아울러 말하기 교육을 효율적으로 指導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當面 問題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교사의 자세에 따라 어느 정도 解決될 수도 있다고 본다。국어과 교사는 授業 時間 以外의 시간을 活用해서 會話 形態 (1對 多) 會話形態 (1對衆) 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周期別로 모든 학생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몇 사람만의 發言의 獨占을 막아야 한다。또 마이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語調, 聲量, 速度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청각 교재의 충분한 활용이 요구된다。

교사는 학생이 Situation에 부합된 올바른 말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때 그 Situation의 명확한 제시 지도가 필요하다。

네째, 언어 환경에 대한 습관화이다。지식이나 이해에 앞서 습관, 태도, 생활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즉 보고 느끼는 장면에 따른 언어 환경속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따라서 한 나라의 언어를 지도함에 있어서 그 나라문화와 관습을 병행시켜 지도해야하며 Situation에 일치하여 기본문형에서 벗어나 머리 속에 형성된 그림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말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Ⅴ、結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정상적 인사람은 누구나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그 모든 사회 활동의 언어로써 이루어지고 있다。언어는 한 사람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효과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것이다。결과적으로 Speech act와 사회의 현재의 교육 실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Speech act에 있어서 문화유의 역할을 달성하다。

중견 국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규의 교육 과정을 마친 사회 초년생들이 실전활동에 있어서 Speech act의 미숙함을 보이는 것은 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시사해 왔다。

이에 Situation의 의미와 말하기 교육에 있어서의 Situation의 적용은, 국어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전체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Situation의 提示를 필요로 하는 討論, 이야기, 演劇, 演說 부분은 말하기 領域 자체의 3분의 1수준에 비하면 그문제해결이나 냉용 이해가 아니라, 습관의 형성과 이해하여 학습한 데 起因한다는 것도 알아야한다』는 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습의 목표라고 한 습관화에 역점을 두었듯 Situation의 습관화는 話者와 聽者간의 완벽한 전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국어교육은 흔히 言語四分節 (Four Fold aims)로 나타내며 크게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치중하고 있다。

이는 (그림7) 에서보였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言語 言語 전체의75%를 차지하는 현상에 견주어 볼때 국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실생활적 국어 교육은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실생활적 국어 교육은 결국 話者의 입장인 이해 각의 음성 언어를 통한 유기적 전달 기술을 길러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話者와 聽者 사이에 생기는 Situation에 따른 意義性을 바르게 分別 認識할 수 있도록 평소의 국어교육 (말하기 영역) 을 통해 이를을 경험 축적해야 한다。

그런데,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話者와 聽者 사이에는 (그림4) 에서와같이 傳達 經由의과정에 話者와 聽者를 연결하는 Transition이 존재한는데, 이 Transition이 어떻게 운용되는가 하는 問題는 話者와 聽者사이의 衆聞 狀態를 구성해주는 Situation의 영향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결국 Encoding되는 순간부터 Comprehension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과정이 Modified Structure와 같이, Situation에 支配받는 것이다。

話者는 자기가 傳達하고자 하는 것을 效果있게 傳達하는 個人 表現과 技術을 육성하는 것이고, 聽者는 理解力의 기술을 길러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話者와 聽者 사이에 생기는 Situation에 따른 意義性을 바르게 分別 認識할 수 있도록 평소의 국어교육 (말하기 영역) 을 통해 이를을 경험 축적해야 한다。

Situation의 경험이 언어 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하고 있음은 모국어와 외국어 습득과정에 있어서 매우 명백해진다。(그림 5)은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배당된 국어와의 국어의 수업 시간이다。국어와 의 국어에 대한 배당 시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학년을 통해 비슷한 추세으로 책정되었다。그런데 국어에 대한 주당 학습 시간의배당은 모국어에 대한 統

한달 일해서 10만원도 못받는 現實, 이것이 오늘 한국경제의 실상인가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試考

〈序論〉

일반이란경제학적술어로서는노동이라는상품에 대한 代價, 즉 價格이다。

일반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으로서 企業에게는 생산요소의 비용으로 되면서 동시에 勞動力을 제공한는 노동자에게 대하여는 生計를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所得源泉이기도하다。

勞動力이라는 상품은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어 살아있는 人間과 분리시킬수 없는데서 노동과 일반을 둘러싼 갖 어려운 社會的 經濟的 문제가발생한다。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노동자를 일반노동자라고 할 때 이들은스스로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내다파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생산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그래서 이들은반드시 노동력을 팔아서 일을 할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따라서 그곳에 필연적으로 窮迫販賣나 投賣가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노동력이란 상품은 생산적인 측면부터 관계없이 시시각각으로 소모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동자의 육신에서 분리시킬 수 없어 그것의 매매에는 필연적으로노동자가 일정기간 고용주의 지휘, 관리하에 들어가서 노동하지 않으면안 된다。

勞動力은 어떠한 사회든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財貨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가치창조의 원동력이다。

人間의 勞動이 귀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韓國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정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규모는 괄목할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近代化過程은 우리 民族의 손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日帝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社會構造에있어서나 經濟構造에 있어서 기형화와 脆弱性을 초래하였던 것이다。때문에 해방을 계기로 한 外勢의 영향과 民族의 자각으로 낡은 諸勢力을 배제하고 새로운 근대화를 이룩하고자하였으나 이 노력도 6·25동란이 발발함으로써 경제적 근대화의 싹을 뿌리째 앗아 가고 말아 효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불안으로 경제적인 안정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한 부흥과정에서 國際資本에 종속되어 좀처럼 시정할 수 없는 산업구조와 기형적 脆弱性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불철저한 근대화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賃金勞動은 형성되어 왔고 이러한 經濟가 지니고 있는 資本主義的·前資本主義的인 二重性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勞動力의 구조에 특수한 性格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때 이제는 勞動經濟와 賃金의 經濟가 國民經濟 구성원의 대다수를 위한 중요문제로서 논의의 촛점으로 대두되기에 충분히 이르렀다고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따라서 賃金의 문제는 雇傭의 문제와 더불어 과거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經濟問題中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어있다。

적어도 문제의 重要性에 합당한결론을 얻으려면 우리나라 賃金의 實情과 그것을 초래한 原因을 가급적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요청된다。

本 論文은 바로 이와같은 일장에 기초를 두고 시도된 것이며, 저일금의 구조적 모순을 파악하고 또한 최저임금제 실시의 조속한 실현을 통해 賃金體系의 合理化를 이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本論〉

Ⅰ、低賃金의 構造的 主要因

1、賃金과 物價의 關係

賃金(혹은 費用)이 오르면 물가(상품의 가격)가 상승한다는 사고방식은「상품의 價格=費用의 合計」라는 도식을 전제로 한것이다。

실제에 있어서「상품의 가격=비용의 합계+이윤」이기 때문에, 賃金이 올라도 利潤을 줄이거나 賃金이의 기타 費用을 줄이면 價格은 변하지 않는다。물론 상품의 價格이 需要·供給의 不均衡으로 일시적으로는 價値보다 높게 될 수도 있지만 自由競爭市場이 전제로 되는 한 供給量이 增加함에 따라 價格은 다시 떨어져 상품의 價値와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賃金이 올랐다고 해서 物價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賃金이 올랐는 데도 價格이 변하지 않는 다면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企業主들이 임금·물가악순환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여러 費用중 賃金이 오르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다。

勞動者가 物價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는 독점기업이 임금 인상전과 같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인상분을 1백%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는 경우인데) 實質賃金 引上率이 勞動生産性增加率과 문가상승률의 합과 같을 경우物價上昇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經濟의 一般的인 원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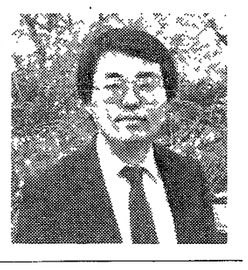
만일 物價(生計費) 上昇으로 인해 勞動者의 實質購買力이 저하한다면이는 賃金의 實質價値가 저하된 것을 의미하며 곧 勞動者의 생활수준이절대적으로 퇴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면 1978년부터 84년도까지 일금의 實質價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84년도 賃金引上율 보면 평균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있다。그런데 노동자들의 84년도 생계비는 작년 5월 대비하여 1년간등안 평균 8·6%만큼 오른것으로나타나 노동자들의 실질구매력은 1년사이 2·6%만큼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자의 생활이작년까지도 절대적으로 퇴보하였음을말하여 주는 것이다。

더우기 정부가 85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歲入規模의 增加를 11.9%, 所得稅의 增加를 12.6%로 책정하고 있어 이것이 올해 노동자 家計에 또하나의 커다란 압박이 될것은 틀림 없다。

林志洙〈경상대·경제학과〉



일금의 실질가치가 저하했는지 증가하였는지 또 저하하였다면 얼마만큼 저하하였는지를 따져보는 기준은 정부의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생계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발표 消費者 物價指數는 그것의 산출을 위해 선정되는 품목과 그 품목의 가격조정, 품목의 중요도 평가(그 품목이 勞動者의 가계지출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등에서 실제 노동자의 가계생활과는 커다란 괴리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表1〉 실질임금의 추이

	명목임금(A)		소비자물가(B)	생계비(C)		실질 임금	
	금액(원)	지수	지수	금액(원)	지수	A/B ×100	A/C ×100
1975	46,019	100·0	100·0	80,708	100·0	100·0	100·0
1980	176,058	382·6	221·2	361,468	447·9	173·0	85·4
1981	212,477	461·7	268·4	440,828	546·2	172·0	84·5
1982	245,981	534·5	287·8	504,070	624·6	185·7	85·6
1983	273,119	593·5	297·6	557,559	690·8	199·4	85·9
1984 2/4	282,534	614·0	304·0	591,706	733·1	202·0	83·8

〈表2〉 저축률의 국제비교 (단위 : %)

	한국		일본		자유 중국	
	'70~'80	'81	'70~'80	'80	'70~'80	'80
국민 저축율 (가계)	21·1 (6·0)	19·6 (4·7)	35·1 (13·8)	31·8 (13·9)	31·6 (12·8)	30·9 (12·7)
해외 저축율	6·9	7·9	-0·6	0·9	-1·3	-1·1

〈表3〉 도시근로자 가계 최저생계비충당률동향(5人가족기준)

	도시근로자가계가구수근로소득(A)	최저 생계비(B)	가계충당률(A/B)
70	22,010(원)	29,319(원)	75·1(%)
75	56,670	80,708	70·2
80	197,871	361,468	54·7
81	236,932	440,828	53·7
82	275,538	504,070	54·7
83	311,580	557,559	55·9

제23회 本社학술상(사회과학부문) 장려상

現實性 부응한 임금체계 최저임금법 시급 使用者측만 有利

자의적 임금체계 支拂能力 矛盾 시정돼야

정책적 무관심, 低賃金과 일맥상통 政府·企業·勞動者 공동 노력이 급선무

심사를 마치고

韓相範

〈법정대교수·헌법학〉

孫海睦

〈법정대교수·형법학〉

俞光震

〈법정대교수·정치이론〉

朴昌魯

〈법정대교수·조직관리〉

吳德永

〈경상대교수·경제사〉

제23회 本社 학술상

창작분야 장려상

여왕의 외출

임형육
<문과대 국문학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줌마, 저녁때 돌아올께요』

그녀는 인사하는 나에게 자동차안에서 잠깐 손을 흔들어 보였다. 오랜만의 외출이라 아무래도 초롱가는 어린애처럼 들뜬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었다. 자동차는 마치 여왕의 호화로운 마차처럼 요란스럽게 대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몇번을 으르렁거리며 어느 새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골목길을 달려내려가는 자동차의 꽁무니가 조그맣게가 물러졌다.

나는 천천히 대문을 닫았다. 철제로 된 대문은 기분 나쁜 신음소리를 토해놓았다. 충세의 성에결린 도개교를 올리는 느낌이었다. 대문에 빗장을 걸고는 집안을 향해 결을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젠 가을이구나. 정원의 벚은 잔디 위로는 가을 특유의 화사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잔디는 아직 파란 빛깔이 돌긴 했지만 그 위로는 벌써 색바랜 낙엽 몇 장이 뒹굴고 있었다. 나비 넥서은 그 새 어디로 달아났을까? 나는 아까까지만해도 대문까지 졸졸졸 따라나서던 고양이를 찾아 정원을 두리번거려 보았다. 넥서이곧 잘 숨어 있곤하는 연못 근처의 바위들이나 단풍나무옆의 풀숲에도 보이질 않았다. 또 집안 어느 구석에서 주새끼를 찾아 해매본지 아니면 어디 양지쪽에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을 것이다.

나는 정원쪽으로 몇 번 나비아를 불러보다가 현관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집의 거대한 몸집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 혼자 살기엔 쓸데없이 커다란 집이었다. 처음 이집에 들어왔을 때는 집이아니라 나의 눈에는 여자 혼자서 이런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기보다 놀라울 뿐이었다.

집안으로 들어온 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먼저 집안청소부터 한 다음에 그간 쌓여 있을 빨래를 세탁해야 할 것이다. 원래는 도촉하자 마자 목욕물부터 받는 동안 아침식사를 마련한 뒤 안방을 정리하고, 그다음 거실 청소를 하고 식사후엔 설것이, 그 다음 순으로 빨래를 하고 나면 점심식사를 마련하고 그녀의 주문에따라 다른 일거리를 한 뒤에 잠을 봐오고 저녁식사 마련, 그다음 또 설것이, 주방청소, 빨래 걷어들이기 순으로 나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마지막순서로 일날을 발고나면 나의 일과는 모두 끝이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가 외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일과는 변경이 되어야했다. 나는 먼저 안방청소부터 하기로 작정했다.

외출을 위해 그녀가 요란한 화장을 하느라 안방은 난장판이 되어있었다. 나는 화장품을 하나 하나 닥아서 제자리에 놓아두기 시작했다. 화장품을 경대위로 책거놓다가 문득 나는 거울속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낯설었다. 이마엔 이미 잔주름이 패이고, 피부도 윤기를 잃고 있었다. 쉰이넘은 그녀보다 마른에서 쉰 고개를넘어가는 중인 내가 더 늙어보였다.

나는 경대위에 놓인 립스틱을 들었다. 핑크빛이었다. 입술위로 립스틱을 얇간 발라 보았다.

거울 위로 핑크 빛 입술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홍빛 립스틱을 지우고 핑크 빛 립스틱을 바르는 중이었다. 아무래도 립스틱의 빛깔이 마음에 들지않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입술위에서 옛날 「황진이」에서의 그 탈북스런 입술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연보라 색으로 바꿔 바르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거울 속의나를 향해 물었다.

『아줌마, 이거 이뻐보여?』

그녀가 무슨 마음으로 외출을 다녈실했는지 궁금하기만 하던 나는 갑작스런 물음에 건성으로 고개만 끄떡였다. 그녀는 만족스런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아주 고상해 보이는 대요?』

나는 다시 생각치 않은 말을 해야했다. 그녀는 벌써 한시간 이상을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웠다 고쳤다 하고 있었다. 거의 석달만의 첫외출을 위해 그녀의 손은 분주했다. 나는 그녀가 얼굴에 콜드 크림을 바를 때부터 그녀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장의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한 시간 남짓하는 사이에 그녀는 몇 번이나 달른 얼굴로 나를 놀라게 했다. 아침에 도착하면 팬젓음 현관분을 열어줄때 그녀의 모습은 늘 잠에서 막 깨어난 부스스한 얼굴이었다. 그러던 것이 목욕만 마치고 나면 그녀의 얼굴엔 숫처녀마냥 홍조까지 떠올라 있곤했다.

목욕후의 전신 마사지에서 나는 그녀의 눈부신 알몸에 대해 매번부러움을 느끼곤 했다. 허리가 조금록 어지고 유방이 밑으로 처진것을 제외하고나면 그녀의 알몸은 삼십대의 그것만큼은 싱싱했다. 그러나 젊자나이를 초월해 버리는 그녀의 눈렵은 화장을에서 진가를 보였다. 볼드크림을 티슈로 깨끗이 지워낸뒤,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른 다음, 언더 메이컬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면 그녀는 언제나 눈썹부터 그리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때부터 바빠지기 마련이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이전에는 눈썹하나에 그렇게 많은 표정이 숨어 있으리라곤 상상을 못했었다. 눈썹프리틀치켜올렸다가, 내렸다가, 일직선으로 그렸다가, 초승달처럼 굽혔다가, 실비단처럼 가늘게, 혹은 굵게, 눈썹 하나를 그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녀를 만나고서야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립스틱의 빛깔이 마음에 들지않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연보라빛을 지우고 다시 핑크빛으로 고쳐발랐다. 내가 보기에도 그녀에겐 핑크빛이 두난해보였다. 그녀는 다시 립그로스를 발랐다. 그녀의 화장이 이제 거의 끝나고 있었다. 다음엔 콤팩트를하고 사넬 넘버 화이트나 샤스틴을 두드릴 차례였다. 그녀는 이 두가지 제품을 가장 애용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눈썹 화장은 끝이날것이었다. 그녀는 몇번이나 고친 화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않는 표정이었다. 특히 젊에서 손뜨기엔 힘이든 버리모양에 대해선 실망스런 표정이었다. 그녀는 허여 드라이어를 내려놓고 머리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골체별한듯 새까만 선글라스를 껴보았다. 선글라스는 얼굴을 반가이 가려 버릴만큼 큰 것이었다. 나는 지나는듯 물었다.

『그렇게 선글라스로 가려버릴거면 뭐하러 공들여 화장을 하셨요?』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그녀의 눈빛이 보이질 않았다.

『선글라스를 써야 사람들이 날 못알아보지. 팽히 길거리에서 아는 척하면 귀찮잖아, 안그래?』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요란스런 화장을 하셨요. 요란한 화장이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끌텐데, 하는 말이 입안을 뱅뱅돌을 뿐이었다.

먼저 집안청소부터 한 다음에 그간 쌓여 있을 빨래를 세탁해야 할 것이다. 원래는 도촉하자 마자 목욕물부터 받는 동안 아침식사를 마련한 뒤 안방을 정리하고, 그다음 거실 청소를 하고 식사후엔 설것이, 그 다음 순으로 빨래를 하고 나면 점심식사를 마련하고 그녀의 주문에따라 다른 일거리를 한 뒤에 잠을 봐오고 저녁식사 마련, 그다음 또 설것이, 주방청소, 빨래 걷어들이기 순으로 나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나는 정원쪽으로 몇 번 나비아를 불러보다가 현관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집의 거대한 몸집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 혼자 살기엔 쓸데없이 커다란 집이었다. 처음 이집에 들어왔을 때는 집이아니라 나의 눈에는 여자 혼자서 이런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기보다 놀라울 뿐이었다.

집안으로 들어온 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먼저 집안청소부터 한 다음에 그간 쌓여 있을 빨래를 세탁해야 할 것이다. 원래는 도촉하자 마자 목욕물부터 받는 동안 아침식사를 마련한 뒤 안방을 정리하고, 그다음 거실 청소를 하고 식사후엔 설것이, 그 다음 순으로 빨래를 하고 나면 점심식사를 마련하고 그녀의 주문에따라 다른 일거리를 한 뒤에 잠을 봐오고 저녁식사 마련, 그다음 또 설것이, 주방청소, 빨래 걷어들이기 순으로 나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외출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서둘러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외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일과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끝이났다. 나는 다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그러나 화면은 나의 시선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나는 다시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로 다가섰다. 정원의 나무들은 대개 풍상이나 낙시를 겪을테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라디오를 듣는게 보통이다. 요즘에야 여자들도 어디로나이다 테라리움이다 해서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뿐이다. 없는사람들이야 지신들과 아귀다툼을 벌이거나, 끼리끼리 모여 고스톱이나 치는 게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취미는 독특했다. 아니특별했다. 그녀는 난초를 친답시고 이런 저런 고상한 난초들을 구해놓긴 했지만 돌보는 덴 거의 무관심했고, 고양이를 유별리좋아하는 걸 빼면 돌볼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못되었다. 오죽하면 이 넓은 집에 개안 마리 없을까? 그녀의 취미는 오히려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세계 명작이나 특선 영화 이런종류의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흥연한 영화만 보았다. 단돌이 다 찍고 싶을 조차 넘어오는 그런 점을 계속 씹듯이, 벌써 수 백번을 보았을 영화를 되풀이 해서 계속 보는 것이유일한 취미였다. 그녀는 계속 같은 영화의 여왕으로 남아 있기 위해, 팬들의 기억 속에 언제나 살들다운 여주인공으로서 남아 있기 위해 일체의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그녀의 자그마한 왕국 속에서 은둔했다. 잡문에 두껍게 드리워진 까만 커튼을 쳐버리면 작은 규모의 소극장처럼 변해버리는 거실에서 차르락 차르락 돌아가는 필름소리를 들으며 옛날의 화려한 꿈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까마득한 달동이와 별다란 정원에 주눅이들어 있던 나는 영사실을 보고는 질려 버렸다. 셋탑생활을 하는 내가 어떻게 개연 소유의 영사시설을 상상이나 했겠었는가?

깜깜한 영사실 속에서 그녀는 목소리만의 주문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우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다. 차가운 불꽃이 활활 타는 듯했다. 나는 한발 한발 용의주도하게 나에게 다가 서고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무언가에 결린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마음만 앞설뿐이었다. 놀은 넓이진 나의 치마 속으로 불쑥 들어왔다. 나는 놀을 꺼정하게 열어 보았다. 놀의 형바닥은 까칠까칠했다. 노처녀가 많은 집에 고양이가 반드시 있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것 같았다.

나는 나비에게 면을 껏내어 주었다. 접시를 먹고 나니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원래는 청소와 세탁이끝나고 나면 그녀의 주문에 따라 잔심부름을 하곤했다. 잔심부름이란, 그녀가 졸저럼 잡힌을 훌훌불면 대신 주책곡에 가서 편지봉위를 부치는 일이나, 그녀가 전화로주문한 물건들을 찾아오는것, 갑을 주고 사오는 것, 그리고 영사기에 필름을 걸어주는 것들이었다. 오늘은 그녀가 외출을 했으니 이런 잔심부름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나비에게 면을 껏내어 주었다. 접시를 먹고 나니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원래는 청소와 세탁이끝나고 나면 그녀의 주문에 따라 잔심부름을 하곤했다. 잔심부름이란, 그녀가 졸저럼 잡힌을 훌훌불면 대신 주책곡에 가서 편지봉위를 부치는 일이나, 그녀가 전화로주문한 물건들을 찾아오는것, 갑을 주고 사오는 것, 그리고 영사기에 필름을 걸어주는 것들이었다. 오늘은 그녀가 외출을 했으니 이런 잔심부름은 없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립스틱의 빛깔이 마음에 들지않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연보라빛을 지우고 다시 핑크빛으로 고쳐발랐다. 내가 보기에도 그녀에겐 핑크빛이 두난해보였다. 그녀는 다시 립그로스를 발랐다. 그녀의 화장이 이제 거의 끝나고 있었다. 다음엔 콤팩트를하고 사넬 넘버 화이트나 샤스틴을 두드릴 차례였다. 그녀는 이 두가지 제품을 가장 애용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눈썹 화장은 끝이날것이었다. 그녀는 몇번이나 고친 화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않는 표정이었다. 특히 젊에서 손뜨기엔 힘이든 버리모양에 대해선 실망스런 표정이었다. 그녀는 허여 드라이어를 내려놓고 머리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골체별한듯 새까만 선글라스를 껴보았다. 선글라스는 얼굴을 반가이 가려 버릴만큼 큰 것이었다. 나는 지나는듯 물었다.

『그렇게 선글라스로 가려버릴거면 뭐하러 공들여 화장을 하셨요?』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그녀의 눈빛이 보이질 않았다.

『선글라스를 써야 사람들이 날 못알아보지. 팽히 길거리에서 아는 척하면 귀찮잖아, 안그래?』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요란스런 화장을 하셨요. 요란한 화장이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끌텐데, 하는 말이 입안을 뱅뱅돌을 뿐이었다.

먼저 집안청소부터 한 다음에 그간 쌓여 있을 빨래를 세탁해야 할 것이다. 원래는 도촉하자 마자 목욕물부터 받는 동안 아침식사를 마련한 뒤 안방을 정리하고, 그다음 거실 청소를 하고 식사후엔 설것이, 그 다음 순으로 빨래를 하고 나면 점심식사를 마련하고 그녀의 주문에따라 다른 일거리를 한 뒤에 잠을 봐오고 저녁식사 마련, 그다음 또 설것이, 주방청소, 빨래 걷어들이기 순으로 나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외출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서둘러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외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일과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끝이났다. 나는 다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그러나 화면은 나의 시선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나는 다시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로 다가섰다. 정원의 나무들은 대개 풍상이나 낙시를 겪을테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라디오를 듣는게 보통이다. 요즘에야 여자들도 어디로나이다 테라리움이다 해서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뿐이다. 없는사람들이야 지신들과 아귀다툼을 벌이거나, 끼리끼리 모여 고스톱이나 치는 게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취미는 독특했다. 아니특별했다. 그녀는 난초를 친답시고 이런 저런 고상한 난초들을 구해놓긴 했지만 돌보는 덴 거의 무관심했고, 고양이를 유별리좋아하는 걸 빼면 돌볼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못되었다. 오죽하면 이 넓은 집에 개안 마리 없을까? 그녀의 취미는 오히려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세계 명작이나 특선 영화 이런종류의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흥연한 영화만 보았다. 단돌이 다 찍고 싶을 조차 넘어오는 그런 점을 계속 씹듯이, 벌써 수 백번을 보았을 영화를 되풀이 해서 계속 보는 것이유일한 취미였다. 그녀는 계속 같은 영화의 여왕으로 남아 있기 위해, 팬들의 기억 속에 언제나 살들다운 여주인공으로서 남아 있기 위해 일체의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그녀의 자그마한 왕국 속에서 은둔했다. 잡문에 두껍게 드리워진 까만 커튼을 쳐버리면 작은 규모의 소극장처럼 변해버리는 거실에서 차르락 차르락 돌아가는 필름소리를 들으며 옛날의 화려한 꿈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까마득한 달동이와 별다란 정원에 주눅이들어 있던 나는 영사실을 보고는 질려 버렸다. 셋탑생활을 하는 내가 어떻게 개연 소유의 영사시설을 상상이나 했겠었는가?

깜깜한 영사실 속에서 그녀는 목소리만의 주문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우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다. 차가운 불꽃이 활활 타는 듯했다. 나는 한발 한발 용의주도하게 나에게 다가 서고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무언가에 결린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마음만 앞설뿐이었다. 놀은 넓이진 나의 치마 속으로 불쑥 들어왔다. 나는 놀을 꺼정하게 열어 보았다. 놀의 형바닥은 까칠까칠했다. 노처녀가 많은 집에 고양이가 반드시 있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것 같았

제28회 본사 학술상 창작문학분야 장려상

눈(물)의 소묘

홍 기 윤

그대 멀어갈수록 깊어오던
겨울
청산함해 눈감은 내 마을에
날보르게 눈뜨시던 꿈나무
잎새
저엉이 팔불인 하늘서
오는은
이리도 소리없이 지고
그대 발자욱으로 찬란한 벌
판길
저물도록 돌아삼다 돌아 서
눈물겨운 흰잎 이같아 밟
으면
하늘나라 오작교 바람의
뿌드득
그 나부가지 꺾는 소리

〈문과대 국문과〉

▲해방후 한국 사학은 공학의 보조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육성책 전혀없어 獨自性과 個性상실

건학이념 퇴색,財政궁핍,경영의 타율성이 큰 문제

沈 聖 輔
<교육평론가>

교육에 관한 화제가 만발하다는 것은 교육의 관심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의 교육에 미정립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7·30개혁조치로 심각히 대두된 公·私立학교간의 불균형적 발전문제도 그 법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근대교육사에 있어 사학이 차지한 비중과 역할은 실로 크다할 수 있으나 해방후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중된 公立學校 육성책에 이제 한국의 私學은 그 독자성과 個性을 상실하고 점차 획일화 되어 가고 있어 그 존립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한창 논의되였던 교육세의 설정 근거에도 공립학교 재정지원은 있되 私學에 관한 어떠한 육성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가까운 시일에 현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보이질 않고 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私學이 안고 있는 문제

사학은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지닌다。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즉 「公共性」과 민간육영재단으로서 독자적인 재량권을 지니는 경영의 「自律性」이 그것이다。이 두 개념이 한 쪽으로 치우칠 때 교육의 균형도 깨지게 된다。이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큰 기본이념이 조화적인 통일을 이룰 때 사학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이 「自律性」과 「自主性」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선진외국들은 사학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재정보조가 아예 없거나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등제는 교육목표 및 내용에서 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감사, 운영자의 임면, 각종 지시 보고 등에 걸쳐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다。특히 중·고교에 대해서는 평준화 실시 이후 신입생의 배정, 공납금의 획일책정등으로 準公立化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도 문교통계에 의하면 사립중학교는 학교수에있어서 전체의 36·1% 학생수에 있어서는 39·1%에 이르고 있으며 사립고등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아 학교수에 있어서는 50·3%, 학생수는 58·7%에 이르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사립중학교가 학교수, 학생수에 있어서 각각 5·2%, 3·2%이며 사립고등학교는 각각 24·8%, 30·2% 이다。이를보아 한국의 사학은 일본에 비해 중학교의경우 약5배, 고등학교의 경우 약2배가된다。

한국의 사학은 일본에 비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비중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학에 대한육성지원책은 일본에 비해 너무나도 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학이 안고있는 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세가지 지적하면 건학정신의 퇴색 재정의 궁핍, 경영의 자주성상실을 들수 있다。

Ⅱ. 私學의建學精神의 褪色

이는 사학의 자율성 내지는 독자성과 관련을 가지는 교육적 유형, 세째 학생의 문제행동은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모, 문제의 학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바람직한 성장을 조성하는 서머힐 같은 실험교육적 유형이 그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植民支配로 부터의 해방을 갈구하거나 급격하게 근대화를 서둘필요가 있었던 한국에는 유럽의 사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 몇가지 있다。

그 첫째는 반골형이다。이 유형은 관학이 체질적으로지니는 현상유지적 또는 체제순응적 교육이념에 반발하여 자유활달하고 진취적인 교육이념을 내세워 자유·독립·민권등 반항적·진사적 기상을 학생들에게 심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형이다。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 독립의 바탕을 교육으로 다지고자 했던 민족사학이 그것이다。

둘째 형은 관학에 들어가지 못한 어려운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비형식적 비제도교육이 그것이다。농민야학이나 노동야학이 이 범주에 속할것이다。

우리의 민족사학이 일제탄압으로 개량주의로 흘러갈 때도 이 야학운동만큼은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민족독립정신을 고취했던 것이다。

셋째의 형은 영리형이다。교육의 기본 정신과 사학의 건학정신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런 형의 사학은 원래 존립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표면상 공익을 내세우고 내면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재산축적형사학이다。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이 범주에 속하는 사학이다。

한국에는 위의 세가지 유형의 사학이 발달하여 역사적으로 관학보다 국민교육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근래 사학의 양적발전에 비하여 질적 충실은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그 원인중의 하나는 사학의 건학정신의 경시 내지는 규제때문일 것이다。이것은 또한 위정자가 학교교육을 이데올로기 통치기구로 보아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우민교육 정책과 관련된다。

해방후 한국 사학은 공학의 보조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았다。이제 한국사학은 일제시대의 민족사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사학이념인 민주적인 사학으로 체질개선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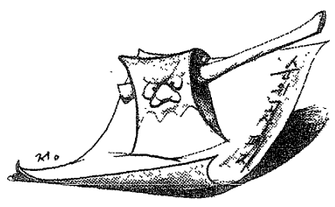
<계속>

目 次

1. 私學의 成立과 정과 設立精神
2. 國家와 私學의 관계
3. 私學의 현재적 위치
4. 私學의 부흥방안

오늘의 韓国私学을 해부한다

東國漫評



◇武는 文보다 강하다

지성의 승리

문 정 희
<시인·70年 국문과卒>

한 집단과 전체에 의해 파괴되는 개인인식의 심층을 깊이묘사한 클로드·시몽에게 금년도 노벨문학상이 돌아갔다。

혹시 중공의 작가 파금(巴金)이 아닐까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우리나라 작가에게는 그것이 언제쯤 오게 될것인가 하는 간절한 기대속에 금년도 노벨상은 우리에게 누보로망이라고 하는 생소한 문학의 장(章)을 하나던져줌과 아울러 그 누보로망의 기수인 프랑스 작가에게 돌아갔다。

東岳路

그렇다면 왜 한국문학에는 노벨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곰곰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할때 마다 우리는 늘 그 일차적 책임을 정치적 안배의 문제에다가 전가해 놓곤했다。

과연 그럴까?그것은 어느만큼은 일리가 있을수도 있다。

그 다음의 이유로 우리는 번역의 문제를 들추어냈다。

기실 이 문제는 심각한 벽이기는 하다。더구나 우리 문학을 대함에 있어 먼저 우리의 문화,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이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명번역가가 그럴듯하게 우리 것을 번역해 놓았다고 한들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

그러나 한번 진심에서생각해 보고 싶다。우리에게 노벨상이 오지 않는 이유가 과연 이렇듯 점치적안 배와 번역의 문제 때문만 일까?

정직하게 말해 그것이전부는 결코 아닐것이다。

하나의 처녀림을 가진작가가 우리에게는 아직 없어서 그렇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한번도 들어가 본적 없는그 작가만의 우주。그런 우주를 가진 작가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 한국문학에 노벨상이 없을까 처녀림 가진 작가없는 것이 원인

연전에 콜롬비아의 가르시아 마르께스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구미 각 신문들의 격렬한 문구들을 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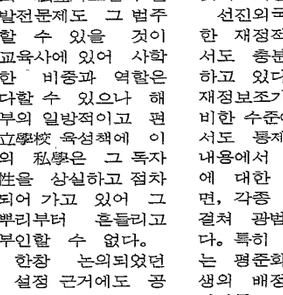
「지성의 건재。」「지성의 승리」대저 이런 표현들이었다。끝없는 남미(南美) 정치의 수난속에서도경제의 곤궁속에서도 그 나라가 살아 있는 나라이며 두려운것은 그 나라에 지성이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노벨상을 기다리기 전에 이땅에 지성의회복과 처녀림을 가진 작가를 먼저 기다려야 할것같다。

우리말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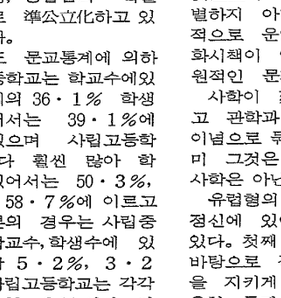
▲안담이 씌우다 :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수묵치다 : 잘못된 곳에 수묵을 발라 감추다。▲짜드락거리다 : 남이 귀찮아하도록 끈끈하게 건드리다。▲적바림 : 뒤에 들추어 보기 위하여 종이에 적어 두는 일 ▲톺아보다 :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살피다。▲제출물로 : 남의 시킴을 받지 아니하고 저한테서 우러난 생각으로。남의 힘을 빌지않고 제힘으로。▲벗바리 좋다 : 뒷배를 보아 줄만한 사람이 많다。▲대매 : 단 한번 때리는 매。▲땅뜀 : 무거운 것을 들어 땅에서 뜨게 하는일 ▲땅보탬 : 사람이 죽은 뒤에 땅에 묻힐을 가리키는 말。▲허리질러 : 반을 타서 절반되는 곳에 ▲옴나위 : 꼼짝할 여유 ▲테밖 : 한 통속에 들지 못한 그 밖 (판밖) ▲낙장거리 : 네 활개를 쭉 벌리고 뒤로 벌떡 자빠짐(넉장거리) ▲앙당거리다 : 춥거나 겁이나서 근육을 조금 움추리다 (응등거리다) ▲곱송그리다 : 겁나거나 놀라서 몸을 잔뜩 오그리다 ▲어리치다 : 독한 기운에 취하다▲희끈거리다 : 어질증이나서 어뜩어뜩하여지다 (희끈대다) ▲사부랑삽작 : 힘을 아니 들이고 선뜻 건너 뛰거나 올라서는 모양▲앙감질 : 한 발을 들고 한 발로만 뛰어 걷는짓 (깨끔질 ▲어기뚱거리다 : 키가큰 사람이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바라지게 잇달아 걷다▲우산걸음 : 걸음을 걸을때 몸을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걷는 걸음 ▲일떠나다 : ①기운차게 일어나다②길을 일찌기 떠나다 ▲제작거리다 : 어린 아이가 겨우 걸음을 걷기 시작하여 위태롭게 걷다 (자작대다) ▲잘쑥거리다 : 한쪽 다리가 짧거나 탈이 나서 약간 잘똑거리다 ▲제겨차다 : 발등으로 올려 차다 ▲충총거리다 : 바쁜 태도로 땅을 구르는 듯이 걷다。▲퍼더버리고 앉다 : 다리모양을 아무렇게나 하고 편하게 앉다 ▲폴딱 거리다 : 힘을 모아 연해 가볍게 뛰다。 <문화부>

(주) 서울 음반이 제공하는
클래식 팬을 위한 특별 기획 음반



'85년은 아마데우스의 해
아카데미상을 휩쓴 화제의 영화
'아마데우스' 오리지날 사운드 트랙 앨범. 장장 12주간 빌보드 클래식 차트의 정상을 석권하며 '85년 그래미상 최우수 클래식 앨범상을 수상한 걸작 레코드。음악팬의 귀에 악숙한 곡뿐 아니라 접하기 어려웠던 숨은 진주와 같은 모짜르트 음악의 하일라이트가 상세한 음악 및 영화 해설과 함께 두장의 레코드에 수록되어 있다。클래식 팬은 물론 팝팬들이 반드시 소장해야 할 명반 중의 명반!!
● 음악 감독 및 지휘 : 네빌 마리너
● 연주 : 성 마틴 실내 관현악단

세계 음반계를 뒤흔드는 자랑스런 한국인 김홍희
블란서를 중심으로 유럽은 물론 전세계 시장에서 폭넓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김홍희(예명 : 키메라)의 화제의 "로스트 오페라 앨범"
불란서에서만 싱글 레코드 100만장 이상이 팔려 나가는 등, 한국인이 취입한 레코드로는 사상 유례없는 세계적인 대 히트를 기록한 본 레코드는 잘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를 메들리로 구성한 이색 오페라 로크 앨범이다。



● 지휘 : 후랑크 프루셀 ● 보컬 : 키메라와 오퍼레이더즈
● 반주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株)서울음반 Seoul Records, Inc.
● 본 기획 레코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발매됩니다.
● 주소 :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오전리 38-3 ● 전화 : 854/0012~3·273/0509

프랑스 국립대학교 유학안내

■ '86년도 불어유학

주관대학교	연수기간	참가인원	참가비	참 가 비 내 역
디 종 (DIJON)	'86.2.10 ~8.30	10명	350만원	신청금, 등록금, 학비 기숙사숙식비, 편도항공료, 의료보험료, 여권, 비자, 수속비, 전기간 입무추진비 등
사 브 와 (SAVOIE)	'86.2.3 ~8.30	20명	330만원	
낭 시 (NANCY)	'86.2.3 ~8.15	20명	330만원	

상기 Program은 프랑스지사의 특별노력과 주선으로 기숙사(1인1실) 보장과 전기간 책임·인솔하며, 정기유학 및 미술디자인, 미용등 전문학교진학을 위한 최선의 어학 연수과정임.

◉참가자격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프랑스유학에 관심이 있는 남녀
◉신청기간 : '85년 11월 4 일~'86년 11월23일 (토·일요일에도 접수함)
◉신청방법 : 본원 신청서 1부 및 신청금 50만원

■ 정규유학
● 국립대학교(학·석·박사학위) 편·입학
● 국립미술학교(Beaux-Arts), 국립장식미술학교(Arts-deco)
● 미용·요리·디자인·VIDEO·영화등 전문학교

IDEF 프랑스유학원
INFORMATION DES ETUDES EN FRANCE
본사 : 종로 2가 56-11 대한컴퓨터학원 BLD 501·505호
TEL : 272-7347, 7458
프랑스지사 : 3, RUE MARECHAL JUIN 76150 MAROMME FRANCE
TEL : (35) 76-36-16

大學英語
教養, 留學, 就職, 大學院試驗準備
開講⇨12月2日
(선착순등록마감)
李在玉 TOEFL
아카데미 TOEFL
大學生 TOEFL
時事 TOEFL
Vocabulary22,000 (12,000)
TOEFL LC, AFKN
英文解釋 ①②③, 英作文
Word power, 美人會話 TIME
基礎英語會話 성문綜合英語.
三位一體 大學院受驗英語
민병철生活英語, 美國生活英語
英語實力基礎, 綜合英文解釋
美國語 Hearing GRE, GMAT
文法및讀解성인基礎會話
受驗日語 (各種試驗對備)
初級日語 中級日語 東京日本語
高級日語, 基礎日語會話
ダイジエスト, 日語高級會話
獨語文法完成 프랑스 語
서반아語, 中國語
院 長 : 文 昌 淳
종로2가 종로서적뒤편 734-2442·732-9226
時事英語学院
時事英語學院

사명감을 다하는
산 外國語 教育을 위하여 전통을 이어왔고
산 外國語 教育을 위하여 전통을 이어간다.
大學生 취직·교양·대학원·진학대비
개강 : 매월 1 日〔각반 선착순 마감〕
종로 외국어 학원
英·日·佛·中·獨·西
東京日本語 日本人會話
프랑스어회화 佛語·西語 中國語·獨語 佛語회화
AIC회화 속성회화
TIME 綜合英語
VOCA2000 英語順解
TOEFL
쯔야꼬·후지하라先生 담당의 막강 日本語〔초·중·고·회화〕
考試日本語·NHK청취·ダイジエスト·JLC日語
프랑스어회화·中國語회화·獨語회화·스페인어회화
TOEFL L/C·성문기본영어·영어실력기초·영어독해 AFKN청취
■ 英語綜合班〔성인을 위한 영어재수반·1日2시간·12名정원〕
■ 취직영어반〔취직대비 만전을 기함·모의고사실시·15名정원〕
■ 여비서직반〔비서직 전문과정·비서로써의 전문교육과정〕
종각 화신옆 구대일학원 2층~4층 ☎732-8381~2

던져진 주사위…심판만 남았다

총학선거유세 取材落穗

民主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東岳을 가득 메우며 운데 제18대 總學生會구성을 위한 세차례에 걸친선거유세가 모두 끝났다。이제 표의 향방이 서서히정해져가고 막바지의 선거전 열기는 한층 고조되고있다。

學園自律化란 미명아래현재의 17대 總學生會가 民主總學의 부활과 앞으로의 학생자치활동의 기반구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면 18대 總學은 학생자치기구로서의 확고한정착과 자치활동 활성화의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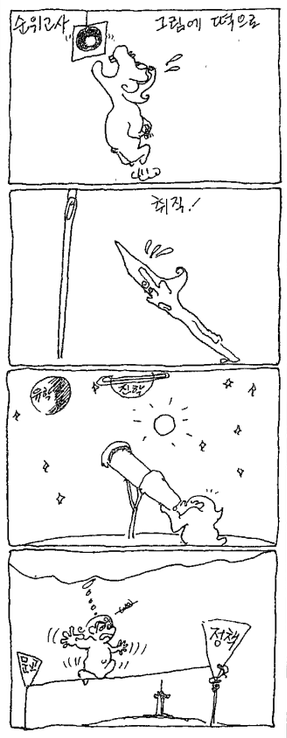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속에서 東國人의 관심이 『과연 누가 東臺를 이끌어 갈까?』라는 데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 비리와 부패, 군부파쇼 등 대총학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비상한관심을 보였다。처음등단한▲기호2번 노재홍(철학·3) 군은 『민주·능투쟁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며 지게는 결코 혼자 설수 없다』며 공감대 형성을 東國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기호3번 송용엽(법학·3) 군은 『소위운동권학생 중심의획일적 자치활동』이라고 17대 총학에 一쇄을 가한후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탈피, 學內행사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질투할것이라고 다짐했다。

▲기호1번 황찬익(국문·3) 군은 『東國의 정신은 4·19혁명, 유신체제하에서 80년의 서울의대로에서 볼수 있다』면서 『종·재단의 돈을 이끌어 갈까?』라는 주제로 집중되어지고 있는 선거전의 초점을

笑怒公

양기호

<36>



「문예중앙」誌 통해 小說로 문단데뷔

"科분위기와 작품 합평회 큰 도움"

이용범君

<문과대 국문과>

「문예중앙」誌(겨울호)에「流刑의 아침」이라는 작품으로「제7회 중편시인 문학상」을 수상하여 문단에 데뷔한 李龍範 (국문 3·휴학) 君。李군을 만난것은 전날 저녁비로 떨어진 낙엽이 촉촉히 젖어 물기을 가득 머금고있는 조금 이른 아침이였다。

『등단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다만 앞으로의 작품활동에 많은 채찍이 되어주는 것으로 기쁠 뿐 입니다』라며 짧게 당선소감을전넨다。

李군은『고교때 남달리 책을가까이 하고 버릇처럼 습작을 꾸준히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창작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글을 쓰게된 동기를 밝히며『국문과에 들어 온후로 좌 특유의 창작분위기와 정기적으로 행해지던 합평회가 나의 무딘 문필을 연마하는데 많은도움이되었다』한다。

또한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학이 어떤것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아직 자기자신이 너무 미흡한것같다며 겸손해 하기도。

그는『과거에는 문학을 참여와 순수로 크게 이분하던것이 이제는 그 기준조차 분명치 않아졌으며 지금에와서 오히려 분류자체가 무의미 해진 경향이있다』라고 하면서 문학은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는 영역이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李군은『인간은 말을 빼앗기면 행동으로 자기의사를 표출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다루어진 이번당선작품에서처럼 자신은『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산재해있는 사회문제를 날카롭게 표현하는 작품을 쓰고 싶다』며 앞으로의 작품세계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그리고『나와같이 60년대 경제와 정치적 과도기에 태어나 4·19, 5·16등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특수한 시대 상황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문단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문학의 흐름은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띠게될 것으로 보입니다』며 앞으로 한국문학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말을 맺으며 李군은 창작에뜻을둔 후배들에게『猜忌와 客氣만을 부리는 학창시절이아니라 각자 깊은 문학관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며 나름대로의 작가의식을 구축해나가야 된다』고 격려했다。【潤】

국립극장 "실험무대"에 올려져 공연

도덕성과 개인적 휴머니티 살려

▲제1회 공연작품 申相星作「처용의 웃음소리」

연극「處容의 웃음소리」가 극단 서울무대에 의해 국립극장 실험무대에 올려져 공연되고 있다。이 작품은 1979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작을 작가 申相星씨가 각색, 구성하여 무대에 올린 것으로 번역극이 아닌 창작극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작가는 작품속에서 40대의 국보급 과학자 장번패의 <의처증>이라는 병을 통하여 오늘날 현대사회가 앓고있는 모순과 비리의 실체를 본질적으로 규명해 보이고자 했다。

이 연극은 정신병환자와 환자아닌 현대인의 생태와 생리를 풍자하여 우리사회를 그대로 투영,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무대의 입체화를 시도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 장번패만이 아니라 현대인 모두가 정신병을 앓고 있음을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소재의 특이성에 기인한다 하겠으나 극중인물, 즉 배우의 연기가 큰 주목을 끌고있는데 그중 싯달타 예수의 연기가 특히 돋보이고 있다。

83년 4월 1회공연을 갖은후 다시 무대에 올려진「처용의 웃음소리」는 1회작품이 다분히 동키호테적 발상과 사회적 리얼리즘 추구한데비해 표현력, 동작성으로 우리사회가 요구하고있는 이시대의 도덕성과 개인적인 휴머니티를 살리면서 개인의 비극이 사회적 비극임을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공감을 얻으려 하고있다。<英>

文化短信

85 寒蘭展
15일까지 관훈동 世蘭齋에서

宣建熙씨의「85 寒蘭展」과 夢平齋·丁哲秀씨의「분청 蘭盆 도예전」이 15일까지 종로구 관훈동 世蘭齋에서 열리고 있다。

寒蘭50여점과「바람」「麥」등 蘭盆작품 50여점이 전시。

한국미술제전 공모
한국예술문화협회 주최로

한국예술문화협회는 제3회 한국 미술제전의 작품을 공모한다。

동양화·서양화·사군자·서예등을 서울의 청호화랑을 비롯한 전국의 지정화랑에 오는 16일부터 18일 사이 접수시키면 된다。각 부문별 수상작품은 추후 세종문화회관에 전시할 예정。

洪貞姬 작품전
17일까지 서울 갤러리서

여류동양화가 一貞 洪貞姬씨 작품전이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갤러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洪氏는 서울美大출신으로 國展, 墨林會展, 新紀會展등에서 활약했으며 이번이 6번째 개인전。

출품작은「바다」시리즈 40여점 내달 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공연된다。

유진·오닐 作인 이 연극은제22회 동아연극상 참가작품 이기도하다。공연시간은 오후 4시와 7시이다。

「느릅나무 그늘의慾情」
제22회 동아연극상 參加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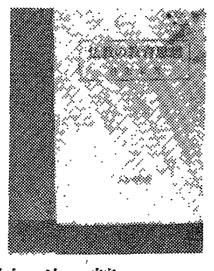
극단 星座의 연극「느릅나무그늘의 慾情」이 오는 21일 부터

알 림

예리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시대를 고민할 새만화 필자를 찾습니다。本校 재학생으로 뜻이 있는분은 대학 內·外문제를 다룬 5회분량의 만화를 本社 문화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佛敎의 敎育思想



朴先榮 교수 著

이번에 동국대학교 교수인 朴先榮박사의 力著 <佛敎의 敎育思想>이 일본에서 번역 출간되었다。새로 나온 日語版은 책의 짜임새부터해서 아주 잘된 책이라 하겠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내가 쓴 <韓國敎育史>의 日譯本(1965)에 이어 두번째요, 특히 불교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 이번에 朴교수의 저서가 日本에서 번역 출간된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수밖에없을것이다。

여기에 하나 첨언할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에 나온 日譯版<佛敎의敎育思想>(東京, 國書刊行會, 1985)은 일찌기 그原著가 韓國敎育學會 학술상수상(1981)저작으로서 학계의 인정된바있는 名著이다。따라서 당연한 이치로 日本에서의 간행도 모든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써 쉽게 이루어진것으로 여겨진다。

事勢가 이러고보니 本書評에서도 日譯本과 관련해서 이하 약간의 부연을해야만될것같다。

첫째, 이 책은 朴교수의 지난 1년간 (1984~1985) 日本의 佛敎大學 客員敎授生活의 하나의 귀중한 學的結實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누구나 海外에서의 연구생활의 경험이 있고 보면 알 수 있듯이 單行本의 現地出刊까지는여간해서 어려운 법이다。그런데 그것을 成事시켰으니 이책 出刊의 의의는 더욱 크고 빛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번역서에는 石堂 豊교수의 추천서와 牧田諦亮교수의 序文이 있다。이것 하나로도日本讀者는 이 책의 내용 보증이 되었다고 느끼리라고 여겨진다。

그 까닭은, 石堂교수가 일본 교육학계에서 그리고 牧田교수가 불교학계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사실 나 역시 이 책 開卷 벽두에 추천자가 石堂교수임을 알고 한편 반갑고, 또한 값있는 추천사를 받게 된 朴교수의 그간 일본 현지에서의 學的활약이 큼을 느꼈다。한 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慶賀로운 일이라고 하겠다。

세째, 말할 것도 없이 이책이 日本에서 간행됨으로써 예상되는 일본 학계에의 공헌도

일본학계에 지대한 영향력 발휘한 번역서

교육학이라는 관계 서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최초였으나 번역서로서도 최초의 일역본이라는 점에서 그 간행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책의 구성으로 말하면 모두 일곱 장으로 되어 있다。즉 서론을 비롯하여 불교사상의 개관, 불교적 교육의 본질과 교육애의 발현, 불교적 가치관과 교육이념, 불교적 교사상, 불교의 아동관, 결론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과문의 탓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도 내가 아는 한 불교 교육학 서적은 매우 드문 것 같다。근래에 나온 것으로는『講座 佛敎思想』(理想社, 1975) 중 제3권이「윤리학 교육학」이라고 되어 있어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 화관에서 상영된다。딸의 복수를 위해 자기몸을 돌보지 않고 살인을 자행하는원초적인감정을 내포한 원색적인 영화라고 할수있다。현대인의 감정을 어떻게묘사하려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고결한 어머니의 인상을 하나의 명분아래 부도덕하고 단지 한명 性의 여자로서 표현했다고 보아

메아리

▲어머니라는 말에대해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그렇듯이혈육의진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서 우리는 보통 어머니란용어를 사용하고있다。아버지와는 달리 그리 嚴하다거나 경직되지 않고 새끼양이 제 털에몸을 감듯 포근한 인상을 함상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女性의 생활력이라든가 끈질긴 인내에 대해서 경외감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영원한 마음의 故鄕으로서 대체되는 영원한 대명사라고나할까。그래서 보통 우리는 祖國을 그에 비유한다거나 자기가 태어난 故鄕을 어머니의 품속이라고도 가끔 표현한다。

▲그런데 요즘의 어머니의 인상은 예전의 그것과는 조금다른성 싶다。소위 웃기는 말로「어미」란 영화가 요즘 某영

性의 어머니

야 할것이다。오로지 흥행만을 위해서 충격적인 장면을「클로즈업시킨, 감정보다는 오락에 치중한 영화이다。메아리는 단지 이 영화자체만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이 영화가 그렇듯이 지금의 세태가 주는 인상은 어머니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로서 性의 어머니가 된 것이라고 할까。그것도 현상적인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보다 원천적인 국가라는 오늘의 어머니가 말이다。비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오늘날 우리가 불평불만을 거리낌없이 하는것도 국가라는 어머니가 과거의 고결성에서 性으로 변해버린 때문은 아닐까 ▲가을이 다 지나갔다。싸늘한 한기를 맞으며 햇살을 다니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어머니를 기다려 추운 날씨도 불사하고 문밖에 나와 서성이던 소년이 지금은 어른이 됐다。그런데 그 소년의 입에선 지금 어머니에 대한 辱이 나오고있다。옛날의 그 추운날의 고통도 모르고 빛만지고, 外觀라하면 사족을 못쓰며 母性을 잃어버린 어머니。그누구도 정편에 대고 욕할순 없지만 돌아서서 한탄하고 한없이 슬퍼할 수 밖에 없는 狀況이 아닌가…… 첫눈을 맞으며 쓸쓸한 겨울에 들어선다。<慶>

해방전후사의 인식 2
강만길 김광식外著

새책안내

해방전후의 우리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시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해방전후사의 인식2」가 출간되었다。

이책은 제1부에서 제1공화국과 친일세력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고 제2부에서, 9월 총파업과 노동운동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제3부는 문화일반에 대한 수준높은 통찰을 제시하고있다。

<한길사刊·532面·5,000원>

청 춘
제2집

노동자들이 스스로 꾸미는 노동자들의 얘기『청춘 제2집』이 나왔다。

이책의 내용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만화『공포의 외인구단』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의 애환을 담은 시, 꽁트, 수필, 독후감과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모색등이 다양하게 실려 있다。

<공동체刊·112面·1,300원>

아코디언 아저씨
송원희著

본교 송원희 동문의 어린이 동화집「아코디언 아저씨」가출간 되었다。

1955년 문학예술지에 소설로데뷔하여 1985년「일붕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송동문의 이번 동화집에는「아코디언 아저씨」「마술할아버지」「하나님모자」「구름을 타고」등 12편의 동화가 실려있다。

<계몽사刊。194面·1,300원>

문화부 소식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문제, 혹은 사회문제에서 보고 느낀 감상을 재치있는 글로 표현해 보시지 않겠읍니까。

분야는 시·수필·꽁트·시론등 모두 좋읍니다。

동국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재소설

어느 殉命

글 전 병 화 〈사범대·국교과〉
그림 채 정 호 〈불교대·미술학과〉

<2>

나는 할아버지 곁에 바싹 다가가서 자릴 잡았다。해진 분홍지 사이로 제법을 넘어온 강바람이 스며들었다。몰래 처마끝에 매달린 풍경을흔들리가 창자를 긁어댔다。

『내가 죽기전에 네놈에게 줘야할 것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들아가시더니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진 말을 가로채고 나섰다。오늘따라 말에 퍽 근엄한 힘이 배합되어 있었다。긴 한숨이 모여 분통으로 새나왔다。

『네놈 예빈 벌써 내 자식도 아니고, 네놈이 이집안을 일으켜야 한대이, 이건 네 에비가 손못된 마지막 남은 돈분서다。열밤못가서 네 핵미도 죽을꺼고, 졸업하긴는 이 논팔아서 네 에미 데릴고 서울가서 살거래이, 이젠 다 틀린 일이니 구태여 촌놈다에서 살것없다』

할아버진 삐개밀에 접어부었던 서류뭉치를 뺀만 앙상한 손으로 넘겨주셨다。

비가 내려야한다。며칠이고 비가 내려야한다。유일한 교통로인 강나룻터에 물이불고 뱃사공이 대문밖으로나올수 없어야한다。강을 건너면 시오리나 떨어진 곳에 할안이 있고 그길로 마산, 부산으로 통했다。

무섭게 비가 공간을 들쑤셔야 한다。

삼꾼은 빗살에 몸을 가누지도 못한채 종일 방안에서 몸부나루만 서야한다。그래서 아버진 강 건너 나룻터에 서서 비만 흠씬 뒤집어 쓰고다시 마산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할아버진 아버질보는 순간 수만개의핏줄이 부풀어오른 시뻘건 몰채로 절명하실지 모른다。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뫼약 가물에 비맞은 기세로 설칠 것이다。조상땀대로 내려온 선산이랑, 논밭이랑 팔아서 마산에서 학원까지 개업해서 배가 가을보다 더 나오게 먹고사는 아버지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아마 이제 몇 마기기 날지않은 전답을 모조리 팔아서 닫을 양목에 이층을 올리고, 학원규모를 더 크게 늘릴지 모른다。바람이 더 거세게 일었다。강변에 빽빽이 들어찬 키 크고 여윈 술렁이는 소리를 냈다。

누구도 돛을 올리지 못할만치 굳고 힘있던 아버지의 눈빛이 퇴색되고 있었다。일곱 번이나 연달아 터져나오는 기침을 하시고는 몸에 불편을 느끼시는지 할아버진 모로 누우셨다。나는 열른 뼛자국이 출출히 낀 할아버지 수염같은 빛깔의 베개를 날쳐 드렸다。할아버지는 누운채 빈 담뱃대를 찾아 입에 물었다。나는 쑥쓰레 빈 담뱃대를 대머리통에 재어놓고 불을 살랐다。

『성호야, 내일쯤 서울 올라가거라, 난 안 즉어, 네 놈이 올개 대핵교졸업하고 장개가서 새로 장손주낳고 집안부리는 꼴 보기전엔 안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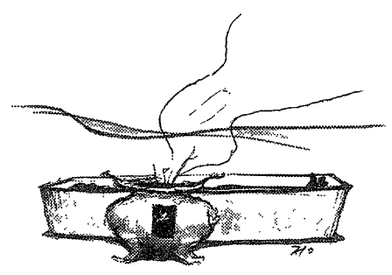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솔결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래도 놈은 몸 하루밤새 모르는것이게 네놈한테 서류봉할 건네주긴 했지만』

『…할아버지』

『괜찮다, 괜찮아, 늙으젓 지레 죽을까봐, 네 에미가 전볼친 모양인데 학교를 빼먹고 내달 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공연된다。

유진·오닐 作인 이 연극은제22회 동아연극상 참가작품 이기도하다。공연시간은 오후 4시와 7시이다。



지는 항상 두려운 사람이었고, 그 후로 아버지라고 불러 본적도 없다。할아버지는 죽어서까지도 아버질 용서치 않았다。

할아버지는 할지 나에게 말을하셨다。

『네놈은 에비하고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 넌 네 에빌 어떻게 생각하노』

내가 중학교에 다닐때 부터는 어느 정도 나의 식견을 인정하시는 것인지 할아버지의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놈은 에비, 에미 등지고, 니 에미까정버리고 내 뺀들, 그 놈을 우찌 사람이라 쿠짓노。선산까정 팔아처먹고 제만 잘살면 제일인줄 아는 불효한 놈 같으니라구, 이자는 죽어도 그 놈은 용서 못한다이』

그러실 적마다 할아버지의 눈망이는 붉게 달아 올랐다。

『할아버지 오래나 사세요, 내가 할아버지 편히 모실께요』

『그래, 그랬음 이 할비가 올매나 좋겠노』

『할아버지…』

『조상보기 민망한 건 어쩔라 치더래도당체 동네사람 보기 부안해서 큰 소리 제대로 못허고 살지도 벌써 이십년이 넘었다』

『이제 다 틀린일이잖아요』

『그래, 아무짜에도 소용없는 것이제』

『걱정마세요, 할아버지』

『걱정은 무슨, 구십 평생 살아온 가슴에 안물리…… 전부 넌부 많이 살았나 보다』

할아버지는 일곱번씩이나 꼬 기절을하셨다。

신설개원/매월1일개강
세무사·공인회계사·강좌안내

오전반	세무사 오정웅 송승현 CPA 황복만 경제학박사 안 해 룡	오후반	세무사 오정웅 CPA 황복만 경제학박사 김 인 준
06:40~08:00 (일요일제외) (4개월)		평 19:00~22:00 토 18:00~21:00 일 14:00~17:00 (3개월완성)	

기타 단과반

회계원리	10:00~11:20 17:30~18:50	평일 〃	세법해설	19:00~20:20	평일
2급 회계	06:40~08:00 19:00~20:20 20:40~22:00	〃 상업 〃 〃 〃 공업	경리실무	11:40~13:00 20:40~22:00	〃
			회계이론	토 18시~21시 일 14시~17시	주 말
1급 회계	06:40~08:00 19:00~20:20 20:40~22:00	〃 원리 〃 〃 〃 원가	경제원론	토 14시~17시 일 10시~13시	〃

남서울회계학원
675-1031, 2● 지하2호선 영등포구청역 옆

●미국통역협회(A.T.A) 소속단체
아세아 외국어학원
*학생모집(접수중)
●동시통역·국내2년·해외1년
●ALC: Asia Language Course
-24주 과정-
불어·독일어·중국어·일어
스페인어·영어
●TOEFL/8주과정
●AFKN 방송특강
◉문의 549-1536/5117
강남구 반포동 49-5(영동시장네거리)
냉·난방/주차시설완비

会計学 実力講座
◎大学実力보강!!
공인회계사·세무사
감정사·공무원시험
개강 每月初·우수강사진·합격을 최고!!
부기 1·2·3급·고급회계·회계이론·税法
李泉根·李祥根·成完済·金東勲 공인회계사 力瞩!!
종로 3가 네거리(피카디리 극장쪽) 765-2502·3
창립36년 전통
정평의 실력강의!! 대한경리학원

통역英·日 Guide
◎外國語 高級化의 지름길
(문법, 독해, 작문, 청취, 회화立体敎育)
◎在学中자격취득·아르바이트추천
◎전망밝은 高所得 새人氣 職種
◎國際社会進出의 実現
= 高級通譯要員專門敎育機関 =
(大在生 特典)
交通部·서울市指定
現代観光研修院
남영동 금성극장옆 중소기업은행빌딩
715-0555, 716-0555, 713-0005

밤과 낮
연속착용 하이파Ⅱ 베스콘렌즈
한미소프트렌즈
종로2가 종각옆
한국주단 3층
☎734-0590
부설: 의안제작

(株)時事英語社 직영
현대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旧 현대 외국어학원〉
●TIME, TOEFL, AFKN 청취, Word Power, Vocabulary, L.C., 성문 綜合英語, 英語実力基礎, 英文読解, 英語順解, 英作文, 日本語, 中國語, 日本語会話, Screen英語
●韓人会話-(Speak-Along English 英語会話)
●美人会話-(New English Course 英語会話)
大学生·成人
英語·日語·中國語
수시등록
개강 12월2일
파고다공원 정문 앞 (주)시사영어사 뒤 (273)4395~7·5081~2